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털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6호 2025년 07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2쇄>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발대식

일시: 2025년 6월 25일 3시 장소: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전달해 이주민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경기도,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출범...7개 언어권 32명 구성, SNS 활동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이 직접 도정과 생활정보를 취재하고, 다국어 콘텐츠

를 제작해 소셜미디어로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다양한 언어와 시각을 가진 기자단이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주민과 도민이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한 기자단은 과거 활동과 다른 변화를 기대한다.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SNS에 올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경기도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6기 기자단은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

며,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몽골어·네पाल어 등 7개 언어권 출신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을 비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E-9, E-7, F-2) 결혼이민자(F-6), 유학생(D-2), 영주권자(F-5), 동포(F-4) 등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보다 몽골어권(6명)과 네팔어권(1명)이 처음 참여하면서, 활동 언어권이 더 확대됐다.

6기 기자단 소개 순서에서는 현장 참가자들이 기자단 활동에 대해 다양한 소감과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호티우엔 기자는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경기도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다”며

“이러한 정보가 저의 생활과 주변의 친구들 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저 자신이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에는 기자단 운영사인 파파야스토리 송하성 대표가 취재 방법 및 기사작성법 등을 강의했다.

기자단은 올해 연말까지 도정 소식, 생활정보, 외국인 정책, 지역축제, 재난안전 정보 등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자증과 취재 물품,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안산 3~10 시흥 11~17 파주 18~21 부천 22~25 고양 26~27 광명 28~31 김포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5, 23, 29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8, 15, 24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1, 13, 19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23, 33 영어(English) 19, 20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8, 15, 3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5, 24, 27 생활정보 Information 3, 14, 17, 21, 34 나의 학습 My Study 22, 25, 27 보건 Health 6 행사 Event 7 이주배경 청소년 10, 25 도서관 Library 17 육아 Child Care 29, 31 사이버대 20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 외국인주민 4, 9, 12 보험 Insurance 11, 15, 23 안전 Safety 8, 19, 20, 29, 33 공모 Public Offering 5, 33 청년 Young Man 13, 19 비자 Visa 24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집중 지적해 예산 절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만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되었으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41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14억원 등 총 76억의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으로 의결되었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과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부위원장 등 13명의 위원은 3일간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열린 심사를 이어갔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도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가 적정한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및 정책 효과성은 충분한지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주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의 의원들께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된 결산 및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함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재외동포 경제·문화적 협력 기반 조성

이인애 의원 발의,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성 기자

장민수 의원,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6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로 우수 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 가운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자치법규의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글로벌혁신도시 경쟁 최종 후보 올라...외국인주민도 자부심

전 세계 633개 참여 도시 중 50개만 선정, 서울과 함께 한국 대표로 우승 도전

안산시가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돼 전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이번 챌린지에는 전 세계 633개 도시가 지원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안산시가 유일하게 최종 50개 후보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산시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선정된 도시로, 최종 우승 시 한국 최초의 글로벌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관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Global Mayors Challenge, 이하 챌린지)’ 최종 후보 50개 도시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6회차를 맞는 챌린지는 전 세계 도시의 삶을 개선하는 지방정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다. 전 세계 인구 10만 이상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도시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대담한 아이디어를 선발하고 있다.

전 세계 633개 도시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는 대한민국 안산시와 서울특별시 등 ▲아시아 14개소 ▲유럽 8개소 ▲미주 18개소 ▲아프리카 9개소 ▲오세아니아 1

개소 등 33개국 50개 도시가 최종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 본선 진출 혜택으로 5만 달러의 시상금을 지원받게 된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상호문화도시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산업도시이자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상호문화도시 안산시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를 구축,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재단에서 정부 혁신 프로그램을 이끄는 제임스 앤더슨은 “지방정부는 정책이 사람을 만나는 곳이며, 정부가 삶을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곳”이라며, “안산시의 정책 제안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공공 부문에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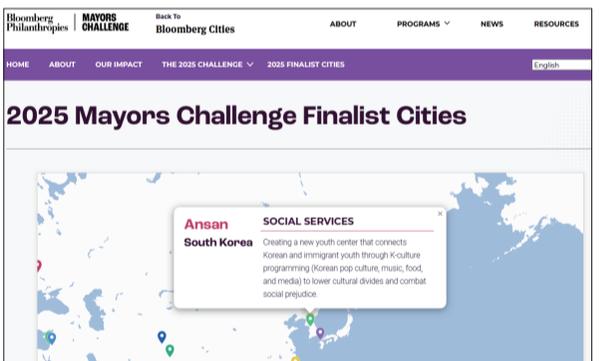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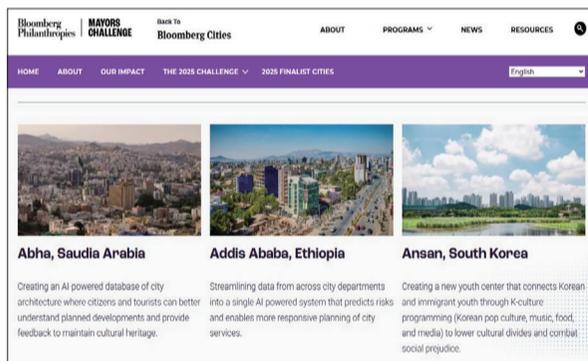
최종 결선에서는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 스페인 바로셀로나, 헝가리 부다페스트,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마르세유,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토론토, 남아공 케이프타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 멕시

코시티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과 혁신 아이디어를 경쟁하게 된다. 앞으로 안산시는 블룸버그 재단 전문가와 함께 웨비나, 아이디어 캠프,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며 최종 결선에 도전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최종 25개 우승 도시로 선정될 경우, 안산시는 상금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 6천만 원)와 정책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운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상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인정받음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 또한 한층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블룸버그 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선정은 안산시가 가진 정책의 다양성과 혁신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블룸버그 재단 전문가와의 협력, 다양한 국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안산시의 혁신 아이디어를 한층 구체화하고 세계의 주요 도시들과도 경쟁하며 안산만의 정책 우수성을 널리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일가정 양립 '가사 지원 서비스' 시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가사부담을 덜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을 신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사업은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2025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올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대상은 관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으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가사서비스는 1가구당 총 15회, 회당 4시간씩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거실·주방·화장실 등 거주공간에 대한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 기본적인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돌봄, 입주청소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신청은 6월 30일 오전 10시부터 6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사업 수행기관인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에 이메일(ansan2060@hanmail.net), 팩스(031-439-2061),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안산시청 누리집 ‘시정소식(새소식)’란과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070-4924-9012, 031-439-20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식 복지국장은 “이번 생활 밀착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가사 부담을 덜어 부모들이 일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립합창단 ‘누구나 함께 안산시민합창제’ 합창팀 모집

안산시(시장 이민근) 안산시립합창단은 7월 11일 까지 ‘누구나 함께하는 안산시민합창제’에서 함께 무대에 오를 온 가족 합창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8월 30일 개최되는 ‘누구나 함께하는 안산시민합창제’는 안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인 ‘안산, 즐거움을 노래하다 Ⅷ’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합창으로 하나되는 특별 기획공연이다. 올해 8년째를 맞아 매년 주목받고 있는 참여형 합창 페스티벌이다.

안산시민 중 가족·직장·학교·친구 등 10명~4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합창팀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고, 7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대모터클럽과 함께 '다(多)함께 페스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지난 6월 21일, 현대자동차 팬덤 동호회 현대모터클럽과 연계하여 다문화와 함께 달리는 꿈 '다(多)함께 페스타'를 진행했다.

현대모터클럽 사회공헌단이 지원한 이날 행사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제공하여 가족 내 소통을 촉진하고 다양한 문화를 상호 이해하며 통합하고자 마련됐다. '다(多)함께 페스타'는 운동회,

체험 부스, 교통안전 교육, 전기차 전시, 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며 아이오닉 5N RC가 만들기, 전통부채 만들기, 활쏘기, 가족 티셔츠 꾸미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이 증진됐다.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 교실에서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행사장 한편에는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시존이 마련되어 전기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국악 가수 서아림의 가야금 연주와 공연이 펼쳐졌다. 이 공연은 전기차의 V2L(Vehicle to

Load, 차량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기술) 기능을 활용, 음향 장비를 운영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자 양 모 씨는 "가족이 함께 협력하며 참여한 시간이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을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어 뜻깊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문숙현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운동회여서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이주민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증진 논의해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는 ▲교육 ▲근로복지 ▲출입국 ▲안전 등 외국인 지원 관련 분야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돼 외국인주민

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증진을 위한 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안산시는 상반기 외국인 주민 권익 증진과 내·외국민 화합을 위한 ▲한양대 ERICA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대상 간담회 ▲외국인주민협의회와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회의 개최 ▲세계인의 어울림한마당 행사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안산시는 이를 동력으로 하반기 안

산 상호문화도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연계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본부장은 "올해는 안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외국인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한 지 20주년, 유령평의회 상호문화도시로 지정된 지 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시가 선도적인 외국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는 기자

상호문화와 첨단기술 어우러진 스마트도시

안산시가 인공지능(AI)과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모델 구현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서 '지역소멸 대응형 스마트도시 모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도시에 접목해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안산시가 공모에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분야는 도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을 집중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5.3:1)을 펼쳤으며,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 변화 대응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도시 전략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8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 등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기반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핵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모델'을 구현할 예정이다.

AI기반 도시문제 해결

안산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구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도시문제 해결에 나선다.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원곡동, 초지동 등 일대에 외국인, 관광객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 특화 서비스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안산시를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교통, 관광, 취업, 행정 등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는 MAAS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MAAS(Mobility as a Service)는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수단 정보를 통합해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와 함께 다문화 지역을 중심으로 행동 데이터 기반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지는 기자

“영상공모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 분위기 만들어요”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영상콘텐츠 공모전 진행, 7월 18일까지 연장 접수

경기도가 오는 7월 18일까지 ‘제1회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캠페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요. 이번 공모전은 이민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당초 공모 기간이 6월 20일까지였으나 7월 18일까지 연장됐어요.

이번 공모전에는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이민사회 통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공모주제는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이민사회 통합과 조화’이며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공모 부문은 △이민사회 통합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 스포츠 영상’ △이주민과 지역사회

가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체험수기 동영상’ 등 2개 분야예요. ‘공익광고 스포츠 영상’은 공모주제와 관련된 공익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고 ‘체험수기 동영상’은 출생지(국)와 가족의 삶, 한국으로 오게 된 사연 및 현재의 한국생활, 앞으로의 꿈과 비전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으면 돼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는 총 1500만 원의 상금과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돼요. 수상 규모는 △대상(2명) 각 300만 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 원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6명) 각 50만 원 등이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중복해서 수상할 수 없으며 최고점 작품 1개만 인정돼요.

참가 신청은 공모작을 비롯해 공모전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전자우편(bravo8032@gg.go.kr)으로 제출하면 돼요. 이 서류는 파파야스토리 토크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에 문의하면 돼요.(031-8030-4682)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공익광고와 체험수기를 통해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민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몽골어 33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 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通过视频征集活动创造多元文化共存的社会融合氛围”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

京畿道将举办第一届与移民一起成长的京畿道活动视频内容征集展，征集日期延长至7月18日。

此次征集活动旨在提高居民对移民社会的理解，并创造多元文化共存的社会融合氛围。原定的提交截止日期为6月20日，但已延长至7月18日。

只要是外国人(包括入籍者)和对移民社会融合感兴趣的人，都可以以个人或团队(2~5人)的身份参加此次征集活动。征集的主题为“与移民共同成长的京畿道—移民社会的融合与和谐”，只要与这一主题相关的内容都可以参与。征集领域包括包含移民社会综合信息的“公益广告

短视频”△讲述移民和地区社会融合故事的“体验手记视频”等两个领域。“公益广告短视频”是包含与征集主题相关的公益内容的视频，“体验手记视频”是包含出生地(国)和家庭的生活、来到韩国的故事及现在的韩国生活、今后的梦想和蓝图等个人内容即可。

通过审查选定的优秀作品将获得共1500万韩元的奖金和京畿道知事奖状。

获奖规模为△大奖(2名)各300万韩元△最优秀奖(2名)各200万韩元△优秀奖(2名)各100万韩元△鼓励奖(6名)各50万韩元等。一个人提交多个作品时，不能重复

获奖，只认可1个最高分作品。参赛申请需通过电子邮件(bravo8032@gg.go.kr)提交参赛作品、申请书、同意书及承诺书。相关文件可以在“Papaya Story Talk”菜单中下载。如需详细信息，可以联系京畿道移民社会支援科 031-8030-4682)。

京畿道移民社会局长金元奎表示：“通过公益广告和体验手记分享实际案例，进一步促进移民与当地社区的交流。我们期待此次征集活动能发掘出推动移民社会积极变化的优秀内容。”〈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ยิ่งพบปะและใช้เวลาร่วมกั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อยเท่าไร ก็ยิ่ง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มากขึ้นเท่านั้น

ยิ่งอายุน้อยและ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อาศัยถิ่นมากเท่าไร ก็ยิ่งพบว่า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มีระดับ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Multicultural Acceptance) สูงขึ้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หมายถึงทัศนคติที่เข้าใจและยอมรับผู้คนที่มีภูมิหลังทาง วัฒนธ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 ตาม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ชาติปี 2024” ที่ประกาศ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สตรี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ผู้ใหญ่อยู่ที่ 53.38 คะแนน เพิ่มขึ้น 1.11 คะแนนจาก 52.27 คะแนน ในปี 2021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เยาวชนอยู่ที่ 69.77 คะแนน ลดลง 1.62 คะแนนจาก 71.39 คะแนน ในการสำรวจครั้งก่อนในปี 2021

สำหรับผู้ใหญ่และเยาวชน ยิ่งอายุน้อย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ก็จะสูงขึ้น ในกลุ่มผู้ใหญ่ ช่วงอายุ 20 ปี มีคะแนนสูงที่สุดที่ 55.44 คะแนน ตามด้วยช่วงอายุ 30 ปีที่ 54.75 คะแนน, อายุ 40 ปีที่ 53.54 คะแนน, อายุ 50 ปีที่ 53.11 คะแนน และผู้ที่มิอายุ 60 ปีขึ้นไป อยู่ที่ 51.14 คะแนน ส่วนในกลุ่มเยาวชน 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มีคะแนนสูงถึง 71.00 คะแนน และ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อยู่ที่ 68.52 คะแนน

ยิ่ง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อาศัยถิ่นหรื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เพื่อน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บ่อยเท่าไร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ก็จะยิ่งสูงขึ้นเท่านั้น สำหรับผู้ใหญ่ ระดับ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ปรผันตามความถี่ในการ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อาศัยถิ่น โดยผู้ที่ มีปฏิสัมพันธ์ “สัปดาห์ละครั้งขึ้นไป” มีคะแนนอยู่ที่ 56.38 คะแนน, “เดือนละครั้ง” อยู่ที่ 54.52 คะแนน, “ปีละครั้ง” อยู่ที่ 53.79 คะแนน และผู้ที่ “แทบไม่มีปฏิสัมพันธ์เลย” มีคะแนนลดลงเหลือ 52.35 คะแนน

ทั้งผู้ใหญ่และเยาวชนต่างมองว่า “การช่วยแก้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เป็นผลเชิงบวกจาก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อาศัยถิ่นมากที่สุด โดยมี สัดส่วนอยู่ที่ 78.3% และ 83.5% ตามลำดับ

สำหรับผู้ใหญ่ พวกเขา มองว่า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อาศัยถิ่นนั้น เป็นเรื่องที่ดี โดยให้เหตุผลตามลำดับดังนี้ “ช่วยบรรเทาปัญหา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67.3%), “ส่งผลดีต่อเศรษฐกิจโดยรวม” (65.6%), “เพิ่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ให้กับวิถีชีวิต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55.3%) และ “ช่วยเสนอแนวคิดใหม่ๆ และส่งเสริมนวัตกรรม” (45.9%)

สำหรับผลกระทบต่อด้านลบจาก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อาศัยถิ่น สิ่งที่ถูกมองว่ากังวลมากที่สุดคือ “ภาระต่อระบบสวัสดิการ”

โดยอยู่ที่ 73.1% ในกลุ่มผู้ใหญ่ และ 52.2% 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รองลงมาคือ “การเกิดความขัดแย้งทางสังคม” (58.0% และ 49.7%) และ “ปัญห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รุนแรงขึ้น” (51.4% และ 35.5%)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สตรี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กล่าวว่า “สัดส่วน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ในเกาหลีเพิ่มขึ้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และในช่วงหลังนี้ ผู้อาศั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ที่ตั้งถิ่นฐานระยะยาว รวมถึ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พหุวัฒนธรรมในวัยเรียนก็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จึง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การขยายความเปิดกว้างมีความสำคัญมากกว่าที่เคย” พร้อมเสริมว่า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ใ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 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ความเข้าใจ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แต่ละ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 และเพิ่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และสื่อสาร เพื่อสร้างสังคมที่ ยอมรับและเคารพ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

การสำรวจ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ป็นสถิติที่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ระดับ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จัดทำทุก 3 ปี โดยการสำรวจในครั้งนี้ ดำเนินการกับผู้ใหญ่ช่วงอายุ 19-74 ปี จำนวน 6,000 คน และ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และมัธยมปลายจำนวน 5,000 คน รวมเป็นทั้งหมด 11,000 คน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ការណែនាំអំពីការបង្ការជំងឺទាក់ទងនឹង កម្ដៅនៅក្នុងរលកកម្ដៅនៃរដូវក្ដៅ



1. អនុវត្តតាមច្បាប់មូលដ្ឋានទាំងបី

កន្លែងធ្វើការនៅខាងក្រៅ	កន្លែងធ្វើការខាងក្នុង
ទឹក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ស្អាត / ផឹកទឹកឱ្យបានញឹកញាប់ដំឡើងពេលធ្វើការ	ទឹក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ស្អាត / ផឹកទឹកឱ្យបានញឹកញាប់ដំឡើងពេលធ្វើការ
ម្ហូប ● ផ្តល់ម្ហូប (កន្លែងសម្រាក) នៅពេលកន្លែងធ្វើការ ● ម្ហូបត្រូវតែមានតំបន់ដែលមានខ្យល់ត្រជាក់ឆ្លងកាត់ ● ដំឡើងម៉ាស៊ីនត្រជាក់តំបន់ដែលមិនមានខ្យល់ត្រជាក់ឆ្លងកាត់	ខ្យល់ ● ដំឡើងឧបករណ៍ស្តុកខ្យល់ និងសំណើនៅកន្លែងធ្វើការ ដើម្បីជំនួសឱ្យខ្យល់ត្រជាក់ ● ដំឡើងកញ្ចក់ និងម៉ាស៊ីនត្រជាក់តំបន់ និងបង្កើតចន្លោះខ្យល់ចេញចូលឱ្យបានខ្លាំង ● គ្រប់គ្រងសីតុណ្ហភាពនៅខាងក្នុង ដោយប្រើប្រាស់ការកែច្នៃបរិស្ថាន
សម្រាក ● ផ្តល់ការសម្រាកជារៀងរាល់ម៉ោងយ៉ាងហោចណាស់ 10 ទៅ 15 នាទី នៅពេលដែលការណែនាំអំពីកម្ដៅ (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 ការជូនដំណឹង) ត្រូវបានប្រកាស ● កាត់បន្ថយការងារនៅខាងក្រៅដំឡើងម៉ាស៊ីនត្រជាក់ (14-17)	សម្រាក ● ផ្តល់ការសម្រាកជារៀងរាល់ម៉ោងយ៉ាងហោចណាស់ 10 ទៅ 15 នាទី នៅពេលដែលការណែនាំអំពីកម្ដៅ (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 ការជូនដំណឹង) ត្រូវបានប្រកាស ● កាត់បន្ថយការងារនៅខាងក្រៅដំឡើងម៉ាស៊ីនត្រជាក់ (14-17)

2. ការឆ្លើយតបនឹងរលកកម្ដៅ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ឬការប្រើប្រាស់ប្រព័ន្ធគ្រប់គ្រងកម្ដៅដើម្បីកាត់បន្ថយសីតុណ្ហភាព

ការជូនដំណឹង ឬការដាក់គ្រឿងអំពីកម្ដៅសីតុណ្ហភាពតាមការស្នើសុំ 35°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5 នាទីរៀងរាល់ម៉ោង
-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លើកលែងតែពេលដែលស្ថានភាពស្របច្របូកច្របល់ ដំឡើងពេលវេលាកម្ដៅ

ការជូនដំណឹងអំពីកម្ដៅ ថ្នាក់កម្ដៅសីតុណ្ហភាពតាមការស្នើសុំ 38°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5 នាទីរៀងរាល់ម៉ោង
-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លើកលែងតែសម្រាប់ការងារត្រូវគ្រប់គ្រងដោយប្រព័ន្ធគ្រប់គ្រងកម្ដៅ និងសុវត្ថិភាពដំឡើងពេលវេលាកម្ដៅ

សីតុណ្ហភាពយល់ឃើញ

លក្ខខណ្ឌទូទៅ
សីតុណ្ហភាពតាមការស្នើសុំ 31°C ឡើងទៅ

- ការផ្តល់ព័ត៌មានអំពីរលកកម្ដៅដល់កម្មករ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ម្ហូប (កន្លែងសម្រាក) និងខ្យល់
- ការផ្តល់ឧបករណ៍ស្តុកខ្យល់ត្រជាក់ដូចជាដំឡើងគ្រឿងបរិស្ថាន
- ការគ្រប់គ្រងកម្មករដែលប្រើប្រាស់កម្មវិធី និងគ្រូបង្ហាញ និងគ្រូបង្ហាញ

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ការណែនាំអំពីកម្ដៅសីតុណ្ហភាពតាមការស្នើសុំ 33°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0 នាទីរៀងរាល់ម៉ោង
- កាត់បន្ថយ ឬក៏ប្រើប្រាស់ការកែច្នៃបរិស្ថាននៅខាងក្រៅដំឡើងពេលវេលាកម្ដៅ

3. វិធានការក្នុងករណីមាន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

មូលដ្ឋានសុខាភិបាល ឬមន្ទីរពេទ្យ ក្នុងករណីមាន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 ទំនាក់ទំនងក្នុងករណីមានអាសន្ន - -

Жайкы аптапта ысыктан улам оорулардын алдын алуу боюнча колдонмо



1. Үч негизги эрежени сактаңыз

Сырттагы жумуш жерлери	Жабык жумуш жерлери
Суу ● Муздак жана таза суу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Жумуш учурунда үзгүлтүксүз суу ичиңиз	Суу ● Муздак жана таза суу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Жумуш учурунда үзгүлтүксүз суу ичиңиз
Көлөкө ● Жумуш орунунун жанында көлөкө (эс алуу зонасы)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Көлөкө чатырлар салкын жел өтүүчү жерлерге жайгаштырылышы керек ● Зарыл болсо, кошумча мобилдик кондиционерлерди орнотуңуз	Шамал ● Жумуш ордунда температура жана нымдуулукту өлчөөчү приборлорду орнотуу жана аларды дайыма текшерип туруңуз ● Желдеткичтерди жана мобилдик кондиционерлерди орнотуп, дайыма желдетип туруңуз ● Түнкүсүн иштегенде да ички температурану башкаруу орнотуңуз
Тыныгуу ●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эскертүү (эскертүү, тынчсыздануу) берилгенде, кеминде 10-15 мүнөттүк үзгүлтүксүз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Эң жогорку температурада сыртта иштөөнү азайтыңыз (14-17)	Тыныгуу ●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эскертүү (эскертүү, тынчсыздануу) берилгенде, кеминде 10-15 мүнөттүк үзгүлтүксүз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Эң жогорку температурада сыртта иштөөнү азайтыңыз (14-17)

2. Ысык апталарга жооп берүү

Эгерде ысыктан улам ооруп калуу коркунучу келип чыкса, жумуш берүүчүлөр же жумушчулар тарабынан ишти токтотуу

Эскертүү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тынчсыздануу
►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5°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5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л ысып кеткен убакыттын ичинде сөзсүз түрдө сыртта иштөөнү токтотуу

Коркунуч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тынчсыздануу
►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8°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5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л ысып кеткен убакыттын ичинде кыскартарды жана коопсуздукту башкаруу боюнча жумушгарды кошпогондо, ачык абада иштөөнү токтотуу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Жалпы шарттар
►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1°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Жумушчуларга ысыктык тууралуу маалымат берүү
- Салкын суу жана көлөкө (эс алуу жайлары) жана жел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Муздакты куралы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мисалы, муздактыч колдун жеңдери ж.б.
- Жогорку интенсивдүү жумушчуларды жана сезимтал топторду башкаруу

Эскертүү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кеңештер
►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3°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0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л ысып турган мезгилде сыртта иштөө убактысын кыскартыңыз же тууралаңыз

3. Ысыкка байланыштуу оорулар пайда болгон учурда чаралар

Ысыкка байланыштуу оорулар учурда дароо телефонга чалыңыз Өзгөчө кырдаалдарда байланышыңыз - -

แนวทางการป้องกัน โรค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ใน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ช่วงฤดูร้อน



1. ปฏิบัติตามกฎพื้นฐานสามข้อ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ในร่ม
น้ำ ● จัดให้น้ำดื่มเย็นและสะอาด / ดื่มน้ำ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ระหว่างทำงาน	น้ำ ● จัดให้น้ำดื่มเย็นและสะอาด / ดื่มน้ำ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ระหว่างทำงาน
ร่มเงา ● จัดให้มีร่มเงา (บริเวณพักผอม) ใกล้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 หลีกเลี่ยงแดดคร่าวๆ ในบริเวณที่ลมเย็นพัดผ่านได้ ● ติดตั้ง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เพิ่มเติมหากจำเป็น	ร่มเงา ● ติดตั้ง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เพิ่มเติม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และ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ติดตั้งพัดลมและ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และระบายอากาศ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การจัดการอุณหภูมิภายในอาคารในขณะทำงานใน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
เวลาพัก ● จัดให้มีการพักผ่อน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อย่างน้อย 10 ถึง 15 นาทีเมื่อมีการออ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สัญญาณเตือน) ● ล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ร้อนสูงสุด (14-17)	เวลาพัก ● จัดให้มีการพักผ่อน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อย่างน้อย 10 ถึง 15 นาทีเมื่อมีการออ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สัญญาณเตือน) ● ล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ร้อนสูงสุด (14-17)

2.

การพักงานของนายจ้างหรือลูกจ้างที่อันตรายจากการ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ที่ใกล้เข้ามา

ค่าเตือนหรือสัญญาณเตือ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5°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5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การระงับ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ยกเว้นเมื่อไม่สามารถหลีกเลี่ยงได้ใน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นตรายหรือสัญญาณเตือ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8°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5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ง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ยกเว้นงาน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ที่ปลอดภัยและปลอดภัย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เงื่อนไขทั่วไป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1°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ข้อมูลเรื่อง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แก่พนักงาน
- จัดให้น้ำดื่มเย็นและร่มเงา (บริเวณพักผอม) และที่ที่มีลมผ่าน
- จัดหาอุปกรณ์ให้ความเย็น เช่น ปลอกแขนให้ความเย็น เป็นต้น
- การจัดการงานที่ทำงานหนักและกลุ่มที่มีความอ่อนไหว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หรือคำแนะนำ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3°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0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ลดหรือปรับ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3. มาตรการกรณี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โทร 999 ทันที หากเกิดกรณี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ติดต่อได้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 - -

موسم گرما میں ہیٹ ویو سے متعلق بیماریوں کی روک تھام سے متعلق رہنما اصول



1. تین بنیادی اصولوں پر عمل کریں

بیرونی کام کی جگہ	اندرونی کام کی جگہ
پانی ● کام کے دوران باقاعدگی سے پانی پیئیں	پانی ● ٹھنڈا اور صاف پانی فراہم کریں / ٹھنڈا اور صاف پانی فراہم کریں / کام کے دوران باقاعدگی سے پانی پیئیں
سایہ ● کام کی جگہ کے قریب سایہ (آرام کی جگہ) فراہم کریں ● سایہ دار کینوپیوں ان علاقوں میں واقع ہونے چاہئیں جہاں سے ٹھنڈی ہوا گزرے ● اگر ضرورت ہو تو اضافی موپائل ایئر کنڈیشنر انسٹال کریں	سایہ ● کام کی جگہ پر درجہ حرارت اور نمی کے میٹر نصب کریں اور انہیں باقاعدگی سے چیک کریں ● ہنگامہ اور موپائل ایئر کنڈیشنر نصب کریں اور باقاعدگی سے چیک کریں ● رات میں کام کرنے والے گہرے اندر درجہ حرارت کا انتظام کرنا
توزی ●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احتیاط، الارم) جاری ہونے پر کم از کم 10 سے 15 منٹ کا باقاعدگی سے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شدید گرمی کے اوقا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و کم سے کم کریں (14-17)	توزی ●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احتیاط، الارم) جاری ہونے پر کم از کم 10 سے 15 منٹ کا باقاعدگی سے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شدید گرمی کے اوقا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و کم سے کم کریں (14-17)

اگر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فوری خطرہ ہو تو اجروں یا کارکنوں کی طرف سے کام کی معطلی

2. ہیٹ ویو کا جواب دینا

انتباہ یا ہیٹ الارم
حسی درجہ حرارت 33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5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ہیٹ ویو کے وقت کے دوران باہر کام کی معطلی سوائے اس وقت کے جب یہ ناگزیر ہو

خطرہ یا ہیٹ الارم
حسی درجہ حرارت 38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5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گرمی کی لہر کے وقت کے دوران ڈیزاسٹر اور سیٹی منیجمنٹ کے کاموں کے علاوہ باہر کام کی معطلی

حسی درجہ حرارت

عام حالات
حسی درجہ حرارت 31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کارکنوں کو ہیٹ ویو سے متعلق معلومات فراہم کرنا
- ٹھنڈا پانی اور سایہ (آرام کی جگہ) اور ہوا فراہم کریں
- کولنگ کا سامان فراہم کریں جیسے بازو کی آستین کو ٹھنڈا کرنا وغیرہ
- زیادہ شدت سے کارکنوں اور حساس گروپوں کا انتظام

احتیاط یا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حسی درجہ حرارت 33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0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ہیٹ ویو کے وق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ے وقت کو کم یا ایڈجسٹ کریں

3.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صورت میں اقدامات

بیماری کی صورت میں 999 پر کال کریں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صورت میں 999 پر کال کریں - -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대표 김태용)는 지난 6월 15일 오후 1~5시 안산올림픽기념관에서 제8회 다문화행복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인도, 네팔, 한국, 베트남 등 10여 개의 나라의 부스가 설치되었으며 각국 부스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음식, 전통놀이, 복식체험, 포토존 등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펼쳐졌다.

특히 한국 부스에서는 윷놀이, 활쏘기, 딱지치기 등의 놀이와 한복을 체험하고, 전통음식 떡과 식혜를 맛볼 수 있어 이주민 관람객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야외무대에서 펼쳐진 중국, 미국, 인도 문화공연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러시아 출신 올라 씨는 “한국에 온지 오래 되었지만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각 나라 부스를 체험하며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중앙아시아 부스에서 만나 너무나 반가웠다”고 말했다.

오후 3시에는 안산올림픽기념관 대공연장에서 세계문화공연이 펼쳐졌다. 다문화예술단의 신명 나는 난타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공연에서는 피에스타 팀의 미국 문화 댄스 ‘원모어타임’, 필리핀 이



‘제8회 다문화행복페스티벌’ 개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 교류의 장 눈길 세계 각국 화려한 문화와 공연 펼쳐져

주민의 공연 ‘Maskara Dance AFC’의 이색적인 무대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태용 대표는 환영사에서 “안산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은 “다문화 이웃들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 온누리행복씨앗후원회에 감사한다. 이런 뜻깊은 행사에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축사를 전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도 이날 행사를 축하했다.

이어진 공연에서는 아프리카의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댄스 및 북춤 공연과 네팔 댄스팀 고르켈리 가이즈의 공연, 초청 가수 김현호의 공연이 펼쳐져 온 관객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150여 명의 안산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큰 활약을 펼쳤다. 아프리카 부스에서 봉사한 김순례 씨는 “자원봉사를 하러 왔는데, 전 세계 문화를 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꼭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Văn hóa sử dụng xe cấp cứu 119 đúng cách—Cư dân nước ngoài cũng cùng chung tay...Kêu gọi sự hợp tác của cư dân nước ngoài.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Hàn Quốc (do ông Heo Seok-gon làm Tổng cục trưởng) đang triển khai chiến dịch "Lan tỏa văn hóa sử dụng xe cấp cứu 119 một cách đúng đắn" nhằm đảm bảo thời gian vàng cứu chữa cho bệnh nhân cấp cứu và giảm thiểu việc lãng phí lực lượng cứu hộ không cần thiết.

Thông qua chiến dịch lần này,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muốn truyền đạt đến người dân và cư dân nước ngoài ba nội dung chính như sau:▲ Hạn chế gọi xe cấp cứu không khẩn cấp một cách bừa bãi▲ Chấm dứt hành vi bạo hành nhân viên cấp cứu 119▲ Tôn trọng việc lựa chọn bệnh việ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Chúng ta cùng tìm hiểu kỹ hơn nhé?

Hạn chế gọi cấp cứu không khẩn cấp một cách bừa bãi

Có trường hợp khi thấy có người bệnh, người ta gọi 119 vì xe cấp cứu sẽ đến tận nhà, dù bệnh nhân không thuộc diện cấp cứu.

Một số người thậm chí chỉ bị đau răng hoặc cảm cúm nhẹ nhưng vẫn gọi 119 yêu cầu gửi xe cấp cứu. Đây thực sự là hành động khó chấp nhận. Xe cấp cứu luôn phải sẵn sàng cho các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nghiêm trọng như ngừng tim, đột quy, nhồi máu cơ tim hay chấn thương nặng. Nếu gọi xe cấp cứu vì những lý do không chính đáng, người bệnh đang trong tình trạng nguy kịch có thể rơi vào tình thế nguy hiểm.

Chấm dứt bạo hành nhân viên cấp cứu 119

Nhân viên cấp cứu 119 đang làm việc rất chăm chỉ để bảo vệ tính mạng và an toàn cho người dân. Tuy nhiên, gần đây thỉnh thoảng lại xảy ra những vụ việc hành hung hoặc cản trở hoạt động của họ.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của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trong 5 năm gần đây đã xảy ra tổng cộng 1.185 vụ hành hung nhân viên cấp cứu, trung bình mỗi năm có khoảng 309 nhân viên bị hại. Con số quá lớn khiến tôi thực sự bất ngờ.

Hành vi hành hung nhân viên cấp cứu là một tội phạm nghiêm trọng trong xã hội, vì nó làm giảm tinh thần làm việc của họ, cản trở hoạt động cứu hộ và có thể dẫn đến suy giảm chất lượng dịch vụ cấp cứu. Những hành vi như vậy thường do người say rượu gây ra, và cần phải ghi nhớ rằng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có hành vi này có thể bị xử phạt nặng.

Tôn trọng việc lựa chọn bệnh việ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Khi có bệnh nhân nguy kịch được đưa lên xe cấp cứu, nhân viên cấp cứu sẽ lựa chọn bệnh viện chuyển viện sau khi xem xét tổng hợp các yếu tố như mức độ nghiêm trọng của triệu chứng, khoa khám bệnh có phù hợp hay không, khả năng thực hiện xử lý và thủ thuật, cũng như thông tin giường bệnh của phòng cấp cứu theo thời gian thực.

Tuy nhiên, một số bệnh nhân hoặc người nhà yêu cầu rằng "Hãy đưa đến bệnh viện gần nhà nhất", "Chúng tôi quen bác sĩ ở bệnh viện ○○", "Nhất định phải đưa đến bệnh viện lớn"... Đây là hành động không tin tưởng vào phán đoán chuyên mô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và khăng khăng làm theo ý mình. Trong tình huống nguy cấp, chúng ta cần tôn trọng quyết định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về việc đưa đến bệnh viện nào.

Cư dân nước ngoài cũng nên tham gia chiến dịch lần này và động viên các nhân viên cấp cứu, những người đang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bảo vệ tính mạng con người trong những tình huống khó khăn.

〈한글 기사 29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ы зөв зохистой хэрэглээний соёлыг,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хамт бүтээцгээе...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이주민도 함께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ар (Захиргааны дарга: Хо Сок Гон) яаралтай тусламж хэрэгтэй өвчтөний алтан цагийг хамгаалж, шаардлагагүй нөөцийн алдагдлыг багасгахын тулд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ы зөв хэрэглээний соёлыг түгээх аян" өрнүүлж байна.

Энэхүү кампанит ажлаар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аас иргэ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ад дараах 3 зүйлийг анхааруулж, уриалж байна. Үүнд: ▲Яаралтай бус шалтгаанаар 119-д хамаагүй дуудлага өгөхөөс татгалзах,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ад гар хүрэх, хүч хэрэглэж дайрахыг таслан зогсоох, ▲Өвчтөнд тохирсон эмнэлгийг сонгох талаар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 шийдвэрийг хүндэтгэх. Эдгээр нь юуг хэлээд байгаа талаар одоо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ж авцгаая!

Яаралтай биш тохиолдолд 119-д хамаагүй дуудлага хийхээс татгалзах

Өвчтэй хүн байгаа гэж 119-т мэдэгдэл өгвөл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шууд гэрт нь ирдэг учраас зарим хүмүүс яаралтай биш мөртлөө дуудлага өгдөг тохиолдол бий. Зарим хүн энгийн шүд өвдөх, ха

ниад хүрэх зэрэг хөнгөн шинж тэмдэгтэй байсан ч 119 дугаарт залгаж,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илгээхийг шаарддаг байна. Энэ бол үнэхээр байж бол омгүй зүйл юм.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нь зүрхний зогсолт, тархины цус харвалт, зүрхний шигдээс, хүнд хэлбэрийн гэмтэл гэх мэт ноцтой яаралтай өвчтөнүүдийн төлөө үргэлж бэлэн байдалд байх ёстой. Гэтэл ийм жижиг асуудлаар дуудлага өгөх нь үнэхээрийн шаардлагатай өвчтөн аюулд орох эрсдэлтэй болгодог.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анд хүч хэрэглэн халдахыг таслан зогсоох

119-ийн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 иргэдийн амь нас,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үнэхээр хичээнгүйлэн ажиллаж байдаг. Гэвч сүүлийн үед эдгээр ажилтнуудад хүч хэрэглэж халдах, ажил үүргийг нь саад хийх тохиолдол хааяа гарсаар байна.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статистик мэдээгээр сүүлийн 5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нийт 1,185 удаагийн халдлагын тохиолдол бүртгэгдсэн бөгөөд жил дунджаар 30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ан ийм

төрлийн хохирол амсаж байгаа нь тогтоогджээ. Энэ нь хэтэрхий олон тохиолдол бөгөөд үнэхээр гайхмаар.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 ажилтанд халдах нь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ын урам зоригийг могоож, аврах ажиллагааг сааруулж,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нар буурахад хүргэж болзошгүй ноцтой нийгмийн гэмт хэрэг юм. Ийм үйлдлийг гол төлөв согтууруулах ундаа хэрэглэсэн хүмүүс үйлддэг бөгөөд, Онцгой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хатуу шийтгэл хүлээж болохыг заавал санах хэрэгтэй.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ы эмнэлэг сонгох шийдвэрийг хүндэтгэх

Яаралтай өвчтөн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д усны дараа,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хан тухайн өвчтөний шинж тэмдэг, өвчний хүндийн зэрэг, шаардлагатай эмчилгээний төрөл, тухайн эмнэлэгт эмчилгээ, хагалгаа хийх боломж байгаа эсэх, мөн шууд эмнэлэг хүлээ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зэрэг олон хүчин зүйлийг цогцоор нь авч үзэн шилжүүлэн үргэх эмнэлгийг сонгодог...〈중략, 한글 기사 29면〉



이주민, 일터·가정·지역사회서 함께!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와 사회통합 방안 논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7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 상반기 정기 회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위원회는 시 거주 외국인 주민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적응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다. 외국인 지원 관련 분야 기관·단체와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된 의견 제안과 시책추진 등에 대한 자문·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활동 보고와 2025년도 상반기 추진한 주요 사업 소개, 하반기

기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안산시는 세계 각국의 특색과 문화가 살아있는 상호문화도시”라고 강조하며 “외국인주민이 일터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오는 9월 2025년 안산 상호문화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외국인 국가별 공동체와 함께하는 명랑운동회 등 내·외국인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법률상식·생활안전 교육 진행**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6월 18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커뮤니티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대상 법률상식 및 생활안전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

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은 지난 2006년부터 이중 언어가 가능한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거주 외국인의 여론 및 불편사항을 수렴·해결하고 있다. 현재 11개국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홍보사항 내용 전달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 제작한 ▲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법률상식 BEST 5 ▲ 생활안전 안내 ‘놀러와 다문화마을특구’ 유튜브 영상 활용 교육이 진행됐다.

김수연(베트남)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부회장은 “법률상식 및 생활안전을 쉽게 익힐 수 있었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까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오늘 배운 정보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다른 외국인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2025년 안산외국인영어마을 여름방학캠프

안산화정영어마을로 떠나는 여름휴가!
 'We're all going on a Summer Holiday'

- 참가자격: 안산시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 대상학년: 초등학교 3~6학년(2025학년도 기준)
- 교육시간: 오전 9시 10분 ~ 오후 3시
- 참가비용: 60,000원(3일)
- 접수방법: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https://reserve.ansan.go.kr>) 접수 후 **추첨식** 선발
- 접수일정: 2025년 7월 1일(화) 오전 10시부터 ~ 7월 7일(월) 오전 10시까지 모집
2025년 7월 8일(화) 오전 10시 추첨
- 당첨확인: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마이페이지-나의 예약현황에서 확인 가능
교육비 인내는 당첨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
- 대기자 추가접수: 2025년 7월 9일(수) 오전 10시부터 안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선착순** 접수
- 안내사항
 - * 신청 시 학생 정보(이름, 학교명 등)를 명확히 기입하지 않는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 신청 후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 양도 불가합니다. (이름 또는 학교 수정 불가)
 - * 중복 당첨은 1건만 인정됩니다.
- 서비스: 탑승장소 및 시간 등 이용안내는 추후 영어마을 홈페이지 참조

차수별 일정 및 셔틀버스 배정학교

1차	7/28(월) ~ 7/30(수)	솔기초, 안산진흥초, 신길초, 안산대림초, 이호초, 관산초, 외동초, 덕인초
2차	7/31(목) ~ 8/2(토)	안산해솔초, 사랑초, 정재초, 안산초, 안산원곡초, 선일초, 안산화정초, 능길초
3차	8/4(월) ~ 8/6(수)	안산호원초, 초지초, 송호초, 화랑초, 정지초, 안산청춘초, 반월초, 팔곡초, 석호초, 학현초
4차	8/7(목) ~ 8/9(토)	안산청석초, 안산해강초, 성안초, 고전초, 각골초, 본원초, 초당초, 시곡초, 덕성초
5차	8/11(월) ~ 8/13(수)	상록초, 안산양지초, 안산광덕초, 안산서초, 원일초, 선부초, 안산석수초
6차	8/14(목) ~ 8/16(토)	별망초, 안산동명초, 성포초, 삼일초, 본오초, 매화초, 호동초, 경일초, 안산부곡초

※ 정확한 탑승위치(기준 학교 주변)와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와 문자로 공지예정
 ※ 차수별 학교 참가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가 인근 다른 학교로 통합 배정
 ※ 차수별 참가자 상황에 따라 쾌적한 셔틀버스 이용을 위해 버스노선이 변동될 수 있음
 ※ 셔틀버스 운영시간: 입소버스_08:10~08:50 / 퇴소버스_15:00~15:50

안산외국인영어마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97 Tel : 031-484-7296/6100 www.ahvego.kr

경기도 안산시 <http://www.ansanwomen.or.kr/>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경기도 가사지원서비스 참여가구 모집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구는 무료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신청하길 잘했어

안산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를 위한 가사서비스 무료지원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방법
가정 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공간(방, 거실, 주방 등)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사항: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등 - 지원 횟수: 1가구당 15회	안산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 (임산부)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18세)가 2명 이상인 가구	2025.6.30 ~ 선착순 마감 (60가구) 이메일, 팩스, 방문 접수 - 이메일 : ansan2060@hanmail.net - 팩스 : 031.439.2061 - 방문 :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71, 한국산업은행 3층 (안산시청 앞)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및 QR 확인요망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문의 : 031-439-2060 / 070-4924-9012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지원정책 마련’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 정기회의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6월 19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2025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 현황 ▲2025년 상반기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성과 ▲2025년 하반기 지원사업 계획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현황 ▲고려인 동포 인권 실태조사 연구 착수 계획 등 5개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고려인 주민의 정착지원 강화 ▲청소년 교육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안산시는 향후 정책 및 사업 계획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재외동포청 공모사업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이정표’가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해 한국어 교육

과 상호문화 이해 교육, 정착생활 교육 등 고려인 동포 맞춤형 정착 지원을 확대했다. 이로써 전액 시비로 추진됐던 고려인 문화센터 운영 사업에서의 시 재정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건립된 ‘고려인 독립운동기념비’ 제막식, 고려인청소년봉사단 발대식, 무료급식소 100회 기념행사 등 다양한 커뮤니티 지원사업도 추진해 지역 내 재외동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역배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본부장은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와 함께 살기좋은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25주년 감사의 날 행사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0일 상록구 사동 소재 고향마을복지관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25주년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안산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2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사할린동포의 인내와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다. 고향마을복지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고향마을 영주귀국 노인회 회장과 사할린동포 1세 어르신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과 기념식,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고국으로 귀환하신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삶을 반추하는 귀한 행사”라며 “25년 전 안산시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신 어르신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사할린동포가 가장 많이 정착한 안산시는 지난 2000년 고향마을아파트(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에 사할린동포 972명의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 총 925명의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당사자 중심 현장 홍보...접근성 강화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 진행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이승미)는 2025년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과 한대앞역 인근 등 이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직접 찾아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센터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청소년과 이주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이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테이블과 파라솔을 설치하고, 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홍보물 배포와

함께,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관한 간단한 상담을 병행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전달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승미 센터장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제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당사자 중심의 접근성과 정보 전달을 핵심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6월에 이어 7월에도 지역 현장에서의 추가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주배경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과 접근성 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심리정서지원, 공교육적응지원, 진로자립지원 사업과 함께 사례관리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 안전망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031-599-1781 이지은 기자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 개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7월 12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과 라이언스홀에서 ‘2026학년도 안산 맞춤형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다변화하는 대입제도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는 안산시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주관하에 진행된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EBS 입시의 정석’ 고정 출연자인 조만기 강사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전략의 이해’ 특강이 열려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는다.

1:1 입시컨설팅에서는 지난 6월 사전 신청한 200명의 관내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제출했던 컨설팅 신청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대입 진학지도 리더교사단이 성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입시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라이언스홀에서 1:1 입시컨설팅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대학박람회에는 관내·외 인근지역 48개 대학이 참여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31-414-0924 이지은 기자



“서로 모르는 부모지만 품앗이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요!”

시흥시가족센터, 자녀돌봄품앗이 전체모임 “응답하라! 시흥 품앗이 운동회” 개최

시흥시가족센터(센터장 고경임)는 지난 6월 21일 한국공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자녀돌봄품앗이 전체모임 운동회 ‘응답하라! 시흥 품앗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자녀돌봄품앗이 운동회는 친화적인 육아 공동체 형성 및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녀돌봄품앗이 활동가와 선배품앗이 가족이 화합하는 시간으로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운동회는 1980~1990년대 초등학교 운동회를 연상케 하는 레트로 콘셉트로 꾸며져, 부모들은 추억을 되새기고 자녀들은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가족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아이들은 물론 부모 세대까지 웃음 짓는 시간이 됐다.

운동회 참여자들은 “서로 모르는 부모들이지만 품앗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꼈다”, “다른 품앗이 가정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추억의 음악과 포토존이 있어 아이도 부모도 옛날 운동회 감성을 한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웃는 모습이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고경임 센터장은 “함께 키우고, 함께 배우는 공동육아’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가족들이 품앗이 안에서 성장하고 서로 연결되는 따뜻한 품앗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 및 자녀돌봄품앗이 문의 031-317-4524 김영의 기자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лиматическую страховку Кёнгидо» без отдельной процедуры оформления 경기 기후보험 안내

***Что за удивительная страховка в Кёнгидо?**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лета, есл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традают от тепловых заболеваний, таких как солнечный или тепловой удар из-за жары,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00,000 вон п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Кёнгидо. Если вы участник программы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от ме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с расходами н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и транспорт. <На фото: иностранный сезонный рабочий, работающий на поле с бататом. Папайя Стори> ***Что такое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 это первая в Кор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траховка, созданная для защиты здо

ровья и жизни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от непредсказуем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отдельном оформлени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Скольк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умма выплат: ▲При диагностике тепл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олнечный удар, тепловой удар и др.) — 100,000 вон ▲При диагнос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ередающихся через комаров и клещей (малярия, цуцуга муши и др.) — 100,000 вон ▲При травмах, связанных с климатом (при диагнозе более 4 недель) — 300,000 вон Особенно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участвую

щих в программе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по причине тепл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100,000 вон в день) ▲Расходы на транспорт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пр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х ▲Экстренные расходы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и т.д. ***Кто такие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Это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пециалисты (например, медсестры) из ме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лично посещают дома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с рисками для здоровья (из-за болезней и пр.) 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здоровьем.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малои

мущие,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пожилые люди от 65 лет и др.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и вы из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заране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в вашем цент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уда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на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Чтоб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страховой выплаты, обратитесь в главный колл-центр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 Hanwha Insurance (02-2175-5030). Узн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ёнгидо (www.gg.go.kr/gg_insure), а также по телефону Hanwha Insurance.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доступная только в Кёнгидо —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свободно получать эти льготы! <한글 기사 23면>



이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시흥외복,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합동홍보 진행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인 정왕시장 인근 정왕어린이도서관 앞 광장에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이동상담은 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어, 전세계약, 스톱킹, 퇴직금 등 다양한 생활 법률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현장을 찾은 외국인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이동상담을 통해 법률상담에 대해 절차를 모르거나, 비용이 들어 선뜻 자문을 받기 어려운 외

국인주민에게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이번 합동부스는 시흥시가족센터,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등 시흥시 관내 유관기관들과 합동 홍보부스로 운영되어, 각 기관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을 외국인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각 기관은 홍보물품 배포와 함께 센터 전단지 등을 나누며 다양한 정보를 안내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현장 중심의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지는 기자

시흥 외국인주민 대상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과정' 개설해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과정'을 개설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수강생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에프(F)-4 또는 에이치(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20명을 선발해 7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8주간 주 5일(월~금) 집중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정왕동에 있는 더큰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이론 수업과 실습을 병행해 구성된다. 자격 취득 후에는 비자 전환과 지역 내 취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실질적인 역량 개발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문영자 시흥시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주민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수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링크 또는 홍보물의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031-310-2521

이지는 기자

시흥시가족센터, 이주민 가정 아동 체계적 지원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신청해요



시흥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한국어 학습 능력이 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동을 조기

에 선별하여 맞춤형 1:1 언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언어 지연으로 인한 의사소통 및 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다.

현재 총 20명의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아동이 참여하고 있으며, ①초기 언어평가 실시 ②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장·단기 교육계획서 수립 ③개별화된 언어 중재 프로그램 제공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언어이해 및 표현, 발음, 화용, 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보이는 사례로 구성되며, 언어발달지도사는 아동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수업은 주 2회, 회당 40분의 집중 언어교육과 보호자 상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사와 아동 간 1:1 맞춤형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보호자 상담을 통해 가정에서의 언어환경 조성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이루어져, 교육과 일상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적 기초를 다져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연중 상시 모집하며, 시흥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hcity.familynet.or.kr>)에서 신청받는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시흥시가족센터 방문 및 전화(031-317-7997)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가족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해외로 나가는 경기 청년, 더 폭넓은 기회의 장이 열렸다

경기청년 기후행동 해외봉사자 200명 모집...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출발!

경기청년 기후행동 해외봉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더 폭넓은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후행동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200명을 7월 8일까지 모집해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돼요.

경기도는 8월에 3개국(몽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에 120명을, 10월에 2개국(캄보디아, 라오스)에 80명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돼요. 참여 대

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 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에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없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합격자는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8월과 10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자세한 사항은 카야인터내셔널(070-5121-2198)로 문의하시면 돼요.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해요.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어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어요. 이들은 오는 6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등) ▲캐나다(UBC) ▲호주(시드니대, 퀸즐랜드대 등) ▲영국(에든버러대)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스페인(알칼라대) ▲싱가포르(국립대) ▲중국(북경대)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열정있는 경기도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러시아어 13명, 영어 19명>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 рубежом 경기 청년에게 열린 다양한 기회, 활용해요

Климатическая волон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за рубежом

Вы знали, что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оживающей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ещё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набор 2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о клима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за рубежом. Приём заявок продлится до 8 июля.

«Климати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Дон Ён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устране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садку деревье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эк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другие волонтер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борьбе с клима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августе 120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три страны (Монголия, Кыргызстан, Филиппины), а в октябре 80 человек — в две страны (Камбоджа, Лаос).

Участник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

ол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ключая перелёт,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частие могут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39 лет,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Кёнгидо на момент публикации объявления, без препятстви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и готовые к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границей. Иностранцы участвовать не могут, однако участие молодёж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онлайн через портал Jobaba Apply (apply.jobaba.net).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ок будет проведён отбор на основе документов и собеседования. Итоги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21 июля.

Прошедшие отбор кандидаты пройдут кур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 разработают командные планы действий, после чего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в указанные страны на 3 недели в августе или октябре.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Kaya International по телефону 070-5121-2198.

Программа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338 участников третьего набора программы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кращ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и поддержку карьерных поисков через обучение за рубежом, отправятся в конце июня на стажировки в 12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8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США, Канаду и Австралию.

21 июня в зале Тасан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правки участников «3-й программы Лестницы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 которой власти пожелали молодёжи успешного старта на пути к глобальному опыту.

Программа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 ключевая инициатива 8-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олее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Её цель — устранение разрыва в доступе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опыту и расширение горизонтов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для молодёжи.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енция составила 16,7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тбора было выбрано 338 участников. С 30 июня они начнут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ША (Мичиган, Баффало, Вашингтон, UC Irvine и др.), Ка

нады (UBC), Австралии (Сидней, Квинсленд),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Эдинбург), Франции (Гренобль-Альпы), Испании (Алькала), Сингапура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итая (Пек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всего в 12 университетах 8 стран.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Сон Чжун отметил: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развиваться через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ктивности. Надеюс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имет вызов. Мы продолжим прилаг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создания ещё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ых и доступны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грамм».

Климатическая волон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за рубежом

Вы знали, что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оживающей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ещё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набор 2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о клима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за рубежом..<중략, 한글 기사 상단>

시민의 가사 부담을 덜어줘요

‘시흥 살림도움 사업’, 1일부터 신청자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민의 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흥형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 시흥살림도움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경기 가사지원서비스’는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도내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시흥시를 포함한 도내 9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시흥시는 이번 신청공고를 통해 7월 18일 30가구를 우선 선정 후, 공고문 내 기재된 우선순위에 따라 11월 말까지 나머지 70가구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7월 말부터 가사관리사 연결을 통해 가구당 총 10회의 가사서비스(청소·설거지·세탁·쓰레기 분리수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사관리 교육을 받은 전문성 있는

가사 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분리수거 등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제공하며 취사나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공고문의 신청 서류를 작성한 뒤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홍성림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일과 돌봄을 병행하며 가사 부담이 큰 가정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지원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저소득층의 평생학습 지원해요

시흥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2차 모집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민들의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2025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부담으로 평생 교육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직무능력 향상, 인문·교양·디지털 역량 개발 등 다양한 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권은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제공된다. 특히 2차 모집은 1차 저소득층 중심 모집과 달리 일반 시민에게로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에게 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집 대상은 ▲청년(만 19~39세) ▲디지털 이용자(만 30세 이상, 디지털 이

용권은 전용 사용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노인(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시흥시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층이라면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 선정 규모는 청년 136명, 디지털 이용자 42명, 노인 35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3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NH농협카드(채움)로 지급되며, 포인트는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전국의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 교육비와 교재비로 쓸 수 있다. 자격증, 어학, 창업,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 자기 계발과 취·창업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신청 기간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s://lllcard.kr/gyeonggi)’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권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1544-6500)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경기가사지원서비스 신청자 모집

가사 노동 부담 경감과 일·가정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지원대상	시흥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구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맞벌이 가구 -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가정방문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분리수거 등)
지원규모	100가구 *1차 선정 30가구, 이후 대기자는 우선순위 순으로 순차 제공 예정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본인부담금 (1회당 금액)	- 115.7㎡(35평) 이하 기본 - 115.7㎡(35평) 초과 148.8㎡(45평) 미만 추가 5,000원 - 148.8㎡(45평) 이상 추가 10,000원

신청방법

시흥시청 홈페이지 공고 (<https://www.siheung.go.kr>)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접수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담당자이메일 접수 (jdf456@korea.kr)

결과안내

- 자격확인 후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1차 서비스 제공 시작일 7월 28일

문의전화 시흥시청 여성보육과 건강가정팀 ☎031-310-2618~9

신청기간 2025. 7. 1. (화) ~ 7. 11. (금) 까지

2025 시흥시 도서관(남부권) 여름방학 프로그램

여름 독서교실 "여름아, 도서관에서 맛있게 놀자!"

중량	시간	대상
중양	8.5.(화)~8.8.(금) 10:00~12:00	초등 3~5 / 12명
군자	8.5.(화)~8.8.(금) 10:00~12:00	초등 1~3 / 10명
정왕어린이	8.4.(월)~8.7.(목) 10:00~12:00	초등 1~2 / 10명
배곧	8.4.(월)~8.7.(목) 10:00~12:00	초등 1~2 / 12명
월곶	8.5.(화)~8.8.(금) 10:00~12:00	초등 1~3 / 12명

여름방학 프로그램

중량	시간	대상
2025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8.5.~8.14. (매주 화, 목) 10:00~12:30 / 4차시	초4~6 / 10명
영어그림책 놀이터 - Play & Talk with Pigeon!	7.26.(토)~8.9.(토), 10:00~12:00	초 1~3 / 8명
내 마음속의 리틀포레스트 (테라리움 꾸미기)	8.12.(화), 10:00~12:00	초 1~3 / 8명
다문화 호두까기 인형극	8.13.(수), 14:30~15:30	유아 및 아동 50명
말랑말랑 그림책 공작소	7.28.~8.18. (매주 월) 16:00~18:00 / 4차시	초등 1~2 / 12명
영어 그림책 놀이(초등 1~2)	7.29.~8.19. (매주 목) 10:00~11:00 / 4차시	초등 1~2 / 10명
영어 그림책 놀이(초등 3~4)	7.29.~8.19. (매주 화) 11:00~12:00 / 4차시	초등 3~4 / 10명
아빠와 함께 하는 그림책 요리(6~7세)	8. 2. (토) 11:00~13:00 / 1차시	6~7세 / 가족 10팀
아빠와 함께 하는 그림책 요리(초등 1~2)	8. 2. (토) 13:00~15:00 / 1차시	초등 1~2 / 가족 10팀
월곶 이야기 보따리	8.5.~8.19. (매주 목) 16:00~18:00 3차시	초등 1~3 / 10명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누리집(lib.siheung.go.kr) > 도서관소식" 참고
※프로그램별 접수일차 상이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gặp khó khăn do nắng nóng mùa hè năm nay, hãy đăng ký tham gia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외국인도 경기기후보험 확인

***Có một loại bảo hiểm tuyệt vời ở tỉnh Gyeonggi sao?** : Từ mùa hè năm nay,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gặp khó khăn do mắc các bệnh liên quan đến nắng nóng như say nắng hay sốt nhiệt, họ sẽ được nhận 100.000 won theo chính sách bảo hiểm khí hậu của tỉnh Gyeonggi. Ngoài ra, nếu thuộc đối tượng của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do trung tâm y tế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bạn còn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thêm chi phí nhập viện và chi phí đi lại.

***Bảo hiểm khí hậu là gì?** : Bảo hiểm khí hậu là loại bảo hiểm chính sách đầu tiên tại Hàn Quốc nhằm bảo vệ sức khỏe và tính mạng của người dân tỉnh Gyeonggi trước những biến đổi khí hậu khó lường. Tất cả cư dân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đều có thể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mà không cần thủ tục đăng ký riêng.

***Bạn sẽ nhận được bao nhiêu tiền bồi thường?** :

Nội dung bảo hiểm gồm ▲ 100.000 won khi được chẩn đoán các bệnh liên quan đến nhiệt do nắng nóng (như say nắng, sốt nhiệt, v.v.) ▲ 100.000 won khi được chẩn đoán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do muỗi và ve (như sốt rét, sốt phát ban Tsutsugamushi, v.v.) ▲ 300.000 won khi bị thương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chẩn đoán trên 4 tuần). Đặc biệt, trong số người dân trong nước, những đối tượng thuộc nhóm dễ tổn thương do khí hậu và tham gia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các khoản sau ngoài các nội dung bảo hiểm trên: ▲ Chi phí nằm viện do bệnh nhiệt (10.000 won mỗi ngày) ▲ Chi phí đi lại đến cơ sở y tế khi có cảnh báo thời tiết ▲ Chi phí vận chuyển khẩn cấp sau đó.

***Người thuộc diện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là gì?** : Đây là chương trình mà các nhân viên chuyên môn như y tá từ trạm y tế địa phương sẽ trực tiếp đến tận nhà đ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ản lý sức khỏe cho những nhóm đối tượng dễ bị tổn thương

có yếu tố nguy cơ về sức khỏe như bệnh tật.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gia đình đa văn hóa, người cao tuổi từ 65 tuổi trở lên có thể đăng ký tham gia. Đặc biệt,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những người có vấn đề về sức khỏe nên đăng ký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trước tại trạm y tế.

***Bạn phải đăng ký nhận tiền bảo hiểm ở đâu?** : Người muốn đăng ký nhận tiền bảo hiểm có thể liên hệ trung tâm tổng đài đại diện của bảo hiểm khí hậu là Hanwha Life Insurance (Số điện thoại: 02-2175-5030). Nếu có thắc mắc liên quan đến bảo hiểm khí hậu, bạn có thể tra cứu trên trang web của tỉnh Gyeonggi (www.gg.go.kr/gg_insure) hoặc gọi điện thoại hỏi Hanwha Life Insurance. Bảo hiểm khí hậu chỉ có ở tỉnh Gyeonggi, nhưng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tận hưởng đầy đủ các quyền lợi nhé~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Энэ зун халуунаас болж ихээр зов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 “Кёнги аймгий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арай!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이용

***Кёнги аймагт үнэхээр гайхалтай даатгал байна гэж үү?**

Энэ зунаас эхл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ч халуунаас үүдэлтэй наранд цохиулах, халууны хордлого зэрэг халуунд өртсөн өвчинд нэрвэгдэж зовсон тохиолдолд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аар 100,000 воны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Хэрэв та орон нутг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ийн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сан бол эмчилгээний зардал, унааны зардал зэрэгт нэмэлт тусламж авч болно.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 гэж юу вэ?**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хын аргагүй цаг уурын өөрчлөлтөөс Кёнги аймгийн иргэдийн эрүүл мэнд, амь насыг хамгаалахад зориулсан, БНСУ-д анх удаа хэрэгжиж буй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даатгал юм. Тусгай бүртгэл, элсэлтийн шаардлагагүй бөгөөд гадаадын бүртгэлтэй иргэдийг ч хамруулан Кёнги аймгийн иргэн бол хэн бүхэн энэ даатгалын үр шимийг хүртэх боломжтой.

***Хэчнээн хэмжээний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дог вэ?**

Даатгалын хамрах хүрээ нь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 Халуунаа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ин (халууны хордлого, наранд цохиулах зэрэг)-ий онош гарвал 100,000 won ▲ Шумуулаар болон хачгаар дамжих халдвар (хумхаа, цэцэгт тахал зэрэг)-ын онош гарвал 100,000 won

▲ Цаг ууртай холбоотой бэртэл гэмтэл (4 долоо хоногоос дээш эмчилгээ шаардсан тохиолдолд) – 300,000 won Ялангуяа дотоодын иргэд дундах цаг уурын эрсдэлд өртөмтгий бүлэг буюу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агсдад дээрх нөхөн төлбөрөөс гадна дараах нэмэлт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 Халуунаас үүдэлтэй өвчнөөр эмнэлэгт хэвтсэн тохиолдолд хонгогийн 100,000 воны эмчилгээний зардал ▲ Онцгой цаг уурын үеийн эмнэлэг явах тээврийн зардал ▲ Шуурхай тээвэрлэлт (авралтын) зардал зэрэг болно.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зорилтот бүлэг гэж хэн бэ?**

Энэ нь өвчин боло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эрсдэлтэй эмзэг бүлгий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хөтөлбөр бөгөөд орон нутг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өөс сувилагч болон мэргэжлийн ажилтнууд тухайн хүний гэрт нь очиж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дэг хөтөлбөр юм.

Орлого багатай иргэд, олон үндэстний гэр бүл, 65-аас дээш насны ахмадууд зэрэг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Эрүүл мэндийн хувьд асуудалтай олон үндэстний гэр бүл зэрэг иргэд урьдчила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д хандан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хөтөлбөр”-т бүртгүүлж байх нь зүйтэй.

***Даатгалын мөнгийг хаана хандаж авах вэ?**

Даатгалын мөнгийг авахыг хүссэн хүн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ын албан ёсны утсаар харилцах төв болох Ханва Даатгал (02-2175-5030) руу холбогдон хүсэлт гаргаж болно.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ллийг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хим хуудас (www.gg.go.kr/gg_insure)-аас авч болох бөгөөд мөн Ханва Даатгал-д утсаар холбогдон асуух боломжтой. Зөвхөн Кёнги аймагт хэрэгжиж буй энэхүү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аас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ч бүрэн дүүрэн үр шимийг хүртээрэй~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신중하게 QR코드 체크!

CHECK 1

아무 QR코드나 찍지 않기!

뭇붙여진 진짜 QR코드인지 살펴보고, 인터넷주소가 올바른지 다시 한번 확인!

CHECK 2

QR코드로 연결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의심하세요!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어요!

CHECK 3

QR코드 접속 시 수상한 앱은 설치하지 않기!

스마트폰은 좀비폰이 되고, 통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갈거예요!

• 쿼싱(QR코드 피싱) 확인방법 •

CHECKLIST QR CAUTION!

CHECK 1

Don't scan just any QR code!

Check to see if the genuine QR code has been replaced with a fake QR code sticker, and double check to see if the URL seems safe or malicious!

CHECK 2

When accessing QR links, don't enter your personal information!

Think twice if you are asked to enter your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phone number! your personal information may be used for fraudulent purposes!

CHECK 3

When redirected to an app, don't install if you find it suspicious!

Your mobile phone can be infected and comprised by hackers, exploiting not only your device but even your bank account!

• Protect Yourself Against QR Phishing (Quishing) •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사업

국가자격증 취득해서 비자 전환도 하고 취업도 하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과정 수강생모집

수강신청 바로가기

모집대상 시흥시에 거주하고 F-4, 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주민

모집인원 20명(신청자 대상 면접을 통해 20명 선발)
※ 면접일시(예정) : 2025. 7. 22.(화) 16:00 /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신청기간 2025. 6. 30.(월) ~ 7. 11.(금) / 2주간

신청방법 온라인 <https://naver.me/G3PbZnb3>

교육기간 2025. 7. 28.(월) ~ 9. 22.(월) 09:00 ~ 17:20
매주 월요일 ~ 금요일 / 8주간

교육장소 더큰요양보호사교육원(정왕동 1740-1)

수강료 30만원(수강료 80만원 중 50만원 지원)
※ 시험응시료(32,000원), 자격증발급비(10,000원) 자부담

문의 시흥시 평생학습과 ☎310-2521

나만 모르는 고3 4등급이하 6개월 마지막 대학 역전 프로젝트

생기부관리 전과목 수행평가 면접

1. 컴퓨터 연,고대 특별반
2. 컴퓨터 수도권 대학 역전반

컴퓨터 코딩 특강

게임, 컴퓨터기초, 자격증, 영상편집
컴퓨터대회, 정보내신, 특성화고, 대학전공

• 시용합영재반

• 디미고 등 IT고 대비반

컴세바의 실제 증하위권 성적 주요대학 합격생명단	대신고 4,8등급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합격	
	대건고 5,8등급	고려대(세) 합격	송도고 5,4등급 고려대(세) 합격
	인명여고 6,4등급	연세대(미) 합격	대건고 5,4등급 연세대(미) 합격
		인화고 5,2등급	고려대(세) 합격
		인명여고 5,7등급	연세대(미) 합격

학교성적 자신 없다면 컴퓨터 로 수도권 대학가자!

초금 200,000

은행단지 맥도날드 맞은편
은행센터 blog.naver.com/bestsam4 (시1384호)

031.313.5073

컴세바아이티탐구학원

여름방학 독서교실 등 참여해요

시흥 남부권 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남부권 공공도서관(중앙 군자 정왕어린이 배곧 월곶)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9일까지 2025년 여름방학 독서교실 및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방학 기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먼저, 여름독서교실은 '여름아, 도서관에서 맛있게 놀자!'라는 주제로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진행된다.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그림책을 읽고 달콤한 간식을 만들어보는 독후활동이 진행되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주최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사업과 연계해 문해력을 기르는 시간도 가진다.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총 15개로 구성됐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책 읽기와 코딩 실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 '2025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을 운영한다. 그밖에 도서관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영어그림책 놀이터-Play&Talk with Pigeon!', '내 마음속의 리틀포레스트(테라리움 꾸미기)'(군자) ▲'다문화 호두까기 인형극(정왕어린이)' ▲'말랑말랑 그림책 공작소', '영어 그림책 놀이', '아빠와 함께하는 그림책 요리(배곧)' ▲'이야기 보따리(월곶)' 등이 마련돼 있다.

전행주 시흥시중앙도서관장은 "이번 여름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무더위를 잊고 마음껏 책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아이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 여름독서교실과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https://lib.siheung.go.kr>)을 통해 도서관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문의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중앙도서관(031-310-5224), 군자도서관(031-310-5191), 정왕어린이도서관(031-310-5182), 배곧도서관(031-310-5286), 월곶도서관(031-310-5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소규모 결혼식 무료 지원해요

시흥시,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등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취약 위기 가족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을 추진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공개모집 후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운영되던 다문화 부부 합동결혼식 등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며,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부부 등 결혼식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해당한다.

총 10쌍을 선정해 예식, 사진촬영, 드레스·턱시도, 메이크업, 피로연 등

을 무료 지원한다. 결혼식 장소는 시흥시 관내 공원, 공공시설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결혼식은 가까운 가족과 친구 50명 정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지난 한 달간 공개모집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주)함께하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함께하지는 시흥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한 부부만을 위한 웨딩'을 제안했으며, 자부담 의지와 지역 봉사단체와의 협업 계획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홍성림 시흥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결혼식 지원은 위기 가족을 이웃이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돕는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건강한 결혼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청은 시흥시에 거주 중이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본인이나 지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함께하자 또는 시흥시청 여성보육과 건강가정팀(031-310-2643)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시흥 해양생태과학관 본격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7월 1일 거북섬동(거북섬서로 35)에 해양생태과학관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생태계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연면적 7,764제곱미터(m²),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해양동물 전시시설, 교육공간, 기획전시실을 갖춘 해양 복합문화시설이다.

1층에는 해양동물 전시 공간이 마련돼 시흥시 갯벌 영상 콘텐츠를 포

함한 다양한 서해안 해양생물과 생태환경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수조와 보호수조가 설치돼 있다. 2층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교육실과 생태교육 체험 공간인 '오션필리아랩(LAB)'이 조성돼 있으며, 3층에는 기획전시실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전시 및 주제별 특별전이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해양생태과학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입장료는 성인 8천 원, 청소년 4천 원, 초등학생 2천 원, 5살 미만 무료이며, 시흥 시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전시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는 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관 누리집(<https://www.siheung.go.kr/mes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2025년 7월 6일

한국어교육

2학기 접수안내

접수일과
시간 꼭 기억하세요!

온라인접수 링크

접수일 : 2025년 7월 6일 오전 10시

신청자격 : 시흥시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

문의 : 031-434-0411

교육 신청 후 대기 → 확정 처리까지는 최대 7일 소요 될 수 있습니다.

강의명	교육시간	교재명	강의실	개강일
한국어 기초 1	9:30	세종한국어 1A, 익힘책	301호	7월 13일
한국어 기초 2		세종한국어 1B, 익힘책	304호	
한국어 회화 고급	11:20	세종학당 실용한국어 4	302호	
한국어 기초 2	11:40	세종한국어 1B, 익힘책	402호	
한국어 중급 1		세종한국어 3A, 익힘책	301호	7월 13일
한국어 중급 2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304호	
한국어 초급 1	세종한국어 2A, 익힘책	302호		
한국어 초급 2	13:30	세종한국어 2B, 익힘책	402호	7월 20일

안내사항 | 중급반2, 회화 고급반은 개별 면담 후 수강 확정됩니다.

사회복지법인 한문교육진흥회 | 시흥시교육지원청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6월 14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군인 부부 20~50대 부부 5쌍(10명)을 대상으로 빅독포레스트 유기견보호소에서 ‘부부 지역 자원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 증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 부부들은 이날 함께 지역 내 유기견 보호소에서 80마리의 강아지가 생활하는 공간을 정성껏 청소하며 부부 간 협동심을 기르고, 더욱 깊이 소통할 수 있

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부부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봉사하면서 힘들었지만,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진행한 신규사업으로 부부.부모 교육, 부부.가족 문화프로그램, 부부 지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파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파주시가족센터 ☎031-949-9164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가족센터, 아버지-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건강성 향상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아버지 역할지원 프로그램 ‘아빠도 자란다, 아빠도 잘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지원 프로그램은 아버지 교육과 아버지-자녀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아버지들의 역할 정립 및 양육 역량 증진과 가족건강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특히 아버지 교육의 경우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센터 역할을 관내 기관과 파주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아빠와 아이의 애착 형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과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가족센터, 무료 노무 상담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파주시 내 3인 가구 중심 맞벌이 가구의 높은 비중과 이들 가정의 직장 내 고충해소 및 긍정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일환으로 무료 노무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전문 노무사가 직접 진행하며, 급여.부당해고.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전화 상담이 제공되며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파주시가족센터는 노무상담 외에도 체험 프로그램, 여가 및 신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무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가족센터(031-949-9162)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 다양한 가족이 영화관람하며 추억 쌓아요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5월 31일 토요일 파주시 관내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문화체험 1회기 영화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구성원 간 친밀감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관람한 영화는 ‘틸로&스티치’로, 외계 생명체 스티치와 소녀 티로가 만나 가족의 의미를 함께 배워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참여자들은 “영화관람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알았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느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가족센터에서는 파주시 가족들의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파주시 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가족센터, 1인 가구 건강한 생활 지원해요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6월 18일 노년기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한방 티테라피 & 콩진단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노년기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참여자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한방차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과 함께 시음.시향을 병행한 ‘티테라피’ 활동은 참여자들에게 기분 전환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다. 이어진 ‘콩진단 만들기’ 체험에

서는 건강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동시에 자극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직접 만든 건강 간식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 체험 후에도 건강 실천이 이어질 수 있는 실용적인 시간으로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방 다도 체험을 통해 노년기 참여자들에게 일상과는 다른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선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한편, 파주시가족센터는 노년기 외에도 청년.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PAJU

2025년 맞벌이가정 일.가정 양립지원

일·심동체 무료 노무상담

- 모집대상 파주시 거주 및 생활권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도 가능)
- 확인사항 노무상담 1인 기준 월 1회만 가능 / 상담 후 만족도 조사 필수
- 운영기간 2025년 2월~11월 (월 12회 선착순 모집)
- 상담분야 공인노무사와 1:1 노동법률 전화상담
- 신청방법 ☎ 031-949-9162

파주시가족센터

For young people going abroad, a wider range of opportunities has opened up

Gyeonggi Youth Climate Action Overseas Volunteer Service

Did you know that there are wider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living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is recruiting 200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climate action overseas volunteer work until July 8.

The 'Gyeonggi Youth Climate Special Envoy' will mainly carry out climate crisis response volunteer work such as tree planting, forest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o resolve the climate gap problem emphasized by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Gyeonggi Province plans to dispatch 120 people to three countries (Mongolia, Kyrgyzstan, and the Philippines) in August and 80 people to two countries (Cambodia and Laos) in October. Participants will be provided with all volunteer expenses, including airfare and accommodation. Participants must be young people aged 19 to 39 who currently reside in Gyeonggi Province

as of the announcement date, have no problems with visa issuance, and are capable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Foreigners cannot apply, but it would be great if multicultural families and youth actively applied.

Participants will be supported with all volunteer expenses, including airfare and accommodation. Participants must be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9 who currently reside in Gyeonggi Province as of the announcement date, have no problems with visa issuance, and are capable of volunteering overseas. Foreigners cannot apply, but it would be great if multicultural families and youth actively applied.

You can apply online at Jobaba Apply (apply.jobaba.net). Applicants will undergo a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 an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announced on July 21. Successful applicants will complete the character education and local activity plan by team before being dispatched, and will be dispatched to the country for approximately 3 weeks in August and

October to do volunteer work.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Kaya International (070-5121-2198).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The 338 participants in the third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which provides overseas university study experience to young people, helping to bridge social gaps and open up diverse career paths, will depart for 12 universities in 8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 Canada, and Australia, starting in late June.

On the 21st, Gyeonggi Province hel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2025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3rd Term' at the Dasan Hall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and cheered on the first steps of 338 young people to advance into the world. The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is the representative youth policy of the 8th local government for 'more equal opportunities', and aims to eliminate the gap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expand the

scope of career exploration.

This year, 338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3rd batch with a competition rate of 16.7 to 1. They are scheduled to begin their training at 12 universities in 8 countries: ▲US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at Buffalo, University of Washington, UC Irvine, etc.), ▲Canada (UBC),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Queensland, etc.), ▲UK (University of Edinburgh), ▲France (University of Grenoble Alpes), ▲Spain (University of Alcalá),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and ▲China (Peking University) from June 30.

Kim Seong-jung, the First Vice Governor of Administrative Affairs, sai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to grow through various activities overseas, so I hope that many passionate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will take on the challenge,"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establish better youth policies so that everyone can have equal opportunities."

〈한글 기사 13면〉

파파야스토리

Создаем культуру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ет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Агентство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чальник Хо Сок Кон) проводит кампа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ультуры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ет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золотое время спасения для экстренных пациентов и сократить ненужные потери пожарных ресурсов.

Через эту кампанию агентство hopes донести до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следующие три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а:

▲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вызовов при не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 Пресеч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119

▲ Уважение к решению спасателя по выбору больницы

Рассмотрим каждый пункт подробнее!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вызовов при не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Быв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ыз

ывают скорую 119, даже если состо

яние пациента не является экстренным,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скорая придет прямо к дому.

Некоторые звонят в 119 даже при зубной боли или обычной простуде и просят прислать карету скорой помощи. Это вызывает искреннее недоумение.

Ск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всегда готова для тяжёлых экстренных случаев, таких как остановка сердца, инсульт, инфаркт миокарда, тяжёлые травмы и т.д.

Если вы вызываете скорую по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причинам, это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под угрозу жизн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дающегося пациента.

Пресеч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119

Сотрудники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усердно работают ради спасения жизн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нападений на спасателей или препятствования их работе.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агентства,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1,185 случаев насилия над спасателями, и в среднем ежегодно страдают 309 сотрудников. Эти цифры шокируют.

Насилие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снижает их моральный дух, мешает проведению спас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ухудшению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такие инциденты происходят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что по Закону об основах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ерьёзное наказание.

Уважение к решению спасателей по выбору больницы

Когда пациента с экстренными си

мптомами везут в скорой, спасатели и выбирают больницу, учитывая тяжесть симптомов, наличие необходимых отделений,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ил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цедур, а также текущую загруженность больниц.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ые пациенты или их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требуют: «Отвезите в ближайшую к дому больницу», «В ○○ больнице у нас есть знакомый врач», «Везите только в крупную больницу» и т.д.

Это означает недоверие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нению спасателей и настаивание на своём.

В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ажно доверять реш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следовать их выбору.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должны поддержать спас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зо всех сил стараются спасти жизни в трудных ситуациях,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й кампании. 〈한글 기사 29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외국인주민도 함께 만들어요

Let's create a culture of proper 119 ambulance use, including foreign residents



The National Fire Agency (Commissioner Heo Seok-gon) is promoting the 'Proper 119 Ambulance Use Culture Spreading Campaign' to secure the golden time for emergency patients and reduce unnecessary loss of firefighting power.

Through this campaign, the National Fire Agency wants to inform the public and foreign residents of three things: ▲Refrain from indiscriminate non-emergency reports ▲Eradicate assault on 119 paramedics ▲Respect the hospital selection of paramedics. Let's find out more about what it's about.

Refrain from indiscriminate non-emergency reporting

When you call 119 because you have a patient, an ambulance comes to your house, so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call even if it is not an emergency.

Some people call 119 and ask for an ambulance even if they have simple symptoms like a toothache or a cold. It is really absurd.

Ambulances should always be ready for serious emergencies such as cardiac arrest,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d severe trauma, but if you call an ambulance for something trivial, a critical patient could be put in danger.

Eradicate assault on 119 rescue workers

119 paramedics work really hard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of paramedics being assaulted or their activities being obstruc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Agency's statistics, the total number of cases of paramedic assaults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1,185, meaning that an average of 309 paramedics are being assaulted each year. I was shocked by the huge number.

Assaulting paramedics is a serious social crime that can lower the morale of paramedics, discourage their rescue activities, and lower the quality of emergency

servic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eople who are drunk usually commit such acts and can be severely punished under the Fire Service Act.

Respect for the paramedic's choice of hospital

When an ambulance arrives with a critical patient, the paramedics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everity of the patient's symptoms, whether there is a department to treat them, whether procedures are available, and real-time emergency room bed information to select a hospital to transport them to.

However, some patients or guardians are demanding things like,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closest to my house," "I know a doctor at ○○ Hospital," or "Please take me to a large hospital no matter what." This is the same as not trusting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the paramedics and insisting on doing as they wish. In an emergency situation, you should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aramedics, no matter which hospital you go to.

Foreign residents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is campaign and encourage paramedics who are doing their best to save people's lives in difficult situations.

<한글 기사 면>

과과야스토리

승실사이버대학교

승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

협약기관 외국인 회원 1학기 등록금 72만원 (50% 장학 적용 시)

TOPIK 4급, 학사학위 취득 시 → K-POINT E74 140점 취득 가능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실전형 커리큘럼 승실사이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25년 7월 19일(토)~25년 8월 14일(목)

입학지원 go.kcu.ac

2025년 하반기(2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자

신청방법: 사회통합프로그램정보망 회원가입을 통한 신청

교육수수료: 단계별 10만원
*1단계(15시간) 및 면제 대상은 무료, 감경 대상은 수수료의 50% 납부

운영과정: 0, 1, 2단계 (주말(토, 일) 수업 없습니다)

구분	단계명	신청기간	과정일시	총 회기	과정 시간	과정 인원	장소
1	0단계 (한국어 기초)	7.7~7.21 09:00 접수오픈	7.22/7.25/7.29 화, 금, 화 10:00~15:00	3 회기	15 시간	20명 (선착순)	파주시 가족센터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2	1단계 (한국어 초급)	7.30~8.4 09:00 접수오픈	8.5~11.7 화, 금 10:00~14:00	25 회기	100 시간	25명 (선착순)	
3	2단계 (한국어 초급2)	7.15~8.4 09:00 접수오픈	8.5~11.18 화, 금 10:00~14:00	25 회기	100 시간	20명 (선착순)	

유의사항

- 교재는 해당단계별로 개별 구매하시면 됩니다.(센터판매 X)
- 신청시작일자 당일 09:00에 접수가 시작 되오니, 신청기간 첫날날 접수 진행 부탁드립니다.
- 선착순으로 접수되며 배정된 인원 이외에 추가접수가 어렵습니다.
- 대기신청하셔도 과정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 각 단계별 인원은 조정이 어려우며, 수업일정은 센터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수업(1단계, 2단계)에는 단계평가+교육수수료(10만원) 납부가 진행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정보망(https://www.socinet.go.kr/)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031-949-9164

파주시가족센터

커피 향기 가득 소통의 시간

파주시가족센터, 1인가구 '간편 드립백 체험'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6월 12일 1인가구의 취향 발견과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간편 드립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바리스타의 시연을 단순히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 스스로 드립백을 직접 만들고 시향.시음을 병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높은 몰입감을 유도했다.

참여자들은 '산미', '바디감', '후미' 등 커피의 풍미를 설명하는 전문 용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각자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가고, 완성된 드립백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1인가구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고립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담당자가 직접 체험 공간을 방문해 청결 상태와 동선 등을 점검하고, 협소한 주차 여건을 고려해 인근 공영주차장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참가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특히 담당자의 사전 연락과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당일 불참자 없이 전원이 참석,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건강한 식생활 '혼밥 식기세트'

파주시가족센터, 1인가구 체험프로그램 운영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5월 31일 1인가구의 정서적 안정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혼밥 식기세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1인가구가 직접 사용하는 식기를 전사지 기법으로 꾸미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국그릇, 밥그릇, 3구 반찬 접시, 수저받침대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식기를 하나하나 완성하며 몰입의 즐거움과 함께 심리적 힐링의 시간을 경험

했다. 특히 전사지를 오려 붙이는 세심한 과정은 바쁜 일상 속에서 집중할 기회를 제공해 "오랜만에 나에게만 집중할 시간이었다"는 참여자 반응이 이어졌다.

완성된 식기는 실용성뿐 아니라 '나만의 혼밥 식기'를 제작했다는 성취감까지 더해졌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8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파주시가족센터 관계자는 "혼밥 식기세트 만들기 체험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나만의 식기를 만드는 의미 있는 과정이 1인가구의 자존감과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근로자 가족 복지 증진 협약

파주시가족센터-LG디스플레이 중대형제조센터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18개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산업단지 근로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파주시가족센터가 LG디스플레이 중대형 제조센터와 손을 맞잡고 LG디스플레이 임직원 가족의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긴밀한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내 LG디

스플레이 임직원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을 통해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족 간 유대감 강화 및 소통 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사숙 센터장은 "이번 LG디스플레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파주시 산업단지 근로자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파주시가족센터가 가족복지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기업과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의 기자

가족시네마로 행복한 시간 가져요

파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사숙)는 지난 6월 21일 영.유아기 20가족(69명)을 대상으로 '가족시네마' 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여가 확대와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파주시 내 '밀크북 극장' 체험 업체에서 가족 영화관람을 진행했다. 체험은 야광 팔찌 놀이, 영화 관람 등이 이뤄졌다. 이날 체험에 참

여한 가족들은,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가족과 뜻깊은 주말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복한 가족 조성 사업은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행복한 가족 조성 사업 관한 문의는 파주시가족센터(031-949-9164)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파주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자 모집

파주시가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자를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총 모집 규모는 총 437명으로, 대상자에게는 연간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이

용권이 지급된다. 모집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청년·디지털·노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모집과 지난 1차 모집 잔여 인원(일반 1명, 장애인 17명)에 대한 추가 모집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지는 기자

희망저축계좌 II 2차 신청 모집

파주시가 7월 1일부터 22일까지 희망저축계좌 II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 II는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3년간 매월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이 매월 10~50만 원을 적립하면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원 중에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야 하며, 3년간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 종료 후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8월까지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주여성 '비즈니스 한국어!'
부천다가, 다이룸 프로그램 지원사업 진행해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동행복지재단과 연계해 지난 6월 11일부터 진행된 '비즈니스 한국어 특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강은 센터 내 자격증을 취득한 대상자와 비즈니스 한국어에 관심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실생활과 직장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 한국어 중심의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높임말과 간접회법 속담 등 언어적 예절을 중심으로 한 실용 대화문 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한국 사회와 직장 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8월 중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이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문은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가온(ON, 070-4130-21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 '희망저축계좌(II)' 2차 모집해

부천시는 7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저축계좌(II)' 2차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I)'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며,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이 매칭돼 적립된다. 2025년부터는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 360만 원, 장려금 72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사업활동을 유지하고, 3년간 본인 적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도 필요하다. 문의 032-320-3000 김영의 기자

'베트남 음식 나눔으로 지역사회 함께'...부천다가, 베트남 음식 짜조 만들어 나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옥제)는 지난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센터 4층 다가온에서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21명을 대상으로 베트남 전통음식 짜조(Chả giò)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하룻배이푸드가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베트남을 대표하는 전통음식인 '짜조' 만들기 활동에 참여한 후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센터 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2기 대상자들이 만든 짜조를 원미동(원미2동주민자치회) 주민들과 나누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들은 '손수 만든 이국적인 음식나눔'이라는 마음을 담은 봉사에 큰 호응을 보였다.

참여자들도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베트남 식(食)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주민

간의 교류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2회기로 기획된 베트남 전통음식 체험 프로그램의 두 번째 회기로 진행됐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한국어교육 2025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예정

접수기간 : 2025. 7. 21.(월)~7 30.(수)
 Thông báo lịch đăng ký trên Kakao lúc 9 giờ thứ Hai ngày 21
 (Nhận đăng ký theo thứ tự có thể kết thúc sớm!)

Đối tượng : Người nhập cư kết hôn(F6)
 Học kỳ 2: Tháng 8 đến tháng 12

기초입문(1반)	기초입문(2반)
월, 수 / 10:00~13:00 2층 1강의실	화, 목 / 10:00~13:00 2층 2강의실
기초 심화반	기초 종합반
월, 수 / 10:00~13:00 2층 2강의실	월, 수 / 10:00~13:00 3층 4강의실
중급반	
화, 목 / 13:20~15:20 / 2층 2강의실	

韩语教育 2025년 하반기

学生募集 即将

申请期间 : 2025. 7. 21.(周一)~7 30.(周三)
 21日(周一)上午9点在中心的kakao频道公开申请书
 (按申请顺序募集, 可能会提前结束!)

申请对象 : 结婚移民者(F6)
 下半年课程进行期间 : 8月~12月

基础入门(1班)	基础入门(2班)
周一,三 / 10:00~13:00 2楼 1教室	周二,四 / 10:00~13:00 2楼 2教室
基础深化班	基础综合班
周一,三 / 10:00~13:00 2楼 2教室	周一,三 / 10:00~13:00 3楼 4教室
中级班	
周二,四 / 13:20~15:20 / 2楼 2教室	

한국어교육 2025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예정

접수기간 : 2025. 7. 21.(월)~7 30.(수)
 21일(월) 오전 9시 센터 카카오톡 채널 신청서 공지
 (신청순 모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F6)
 하반기 수업 진행 기간 : 8월 18일~12월 5일

기초입문(1반)	기초입문(2반)
월, 수 / 10:00~13:00 2층 1강의실	화, 목 / 10:00~13:00 2층 2강의실
기초 심화반	기초 종합반
월, 수 / 10:00~13:00 2층 2강의실	월, 수 / 10:00~13:00 3층 4강의실
중급반	
화, 목 / 13:20~15:20 / 2층 2강의실	

올 여름 폭염에 고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 기후보험' 신청해요!

외국인주민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경기도에 놀라운 보험이 있다고?** : 이번 여름부터 외국인주민도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하게 되면 경기도의 기후보험에 따라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라면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아요.

***기후보험이 뭐야?** :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정책보험이에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보상 받아?** :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

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와 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쯤쯤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에요. 특히 내국인 중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뭐야?** : 질병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 등은 미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보험금은 어디에 신청하면 돼?** :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후보험 대표 콜센터 한화손해보험(02-2175-5030)에 신청하면 돼요. 기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손해보험에 전화로 문의해도 돼요. 경기도에만 있는 기후보험, 외국인주민들도 마음껏 혜택을 누리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15면, 러시아어 11면, 태국어 하단, 몽골어 1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今年夏天饱受酷暑之苦的外国居民请申请“京畿气候保险”! ... 温热病诊断时支付10万韩元

***京畿道竟然有这种保险?** : 从今年夏天开始,如果外国居民也因酷暑患上中暑或热射病等温热病时,根据京畿道的气候保险,可以得到10万韩元的保险金.如果是地区保健所的访问健康管理项目服务对象的话,住院费和交通费等也将得到追加支援.

***气候保险是什么?** : 气候保险是为了保护京畿道居民的健康和生命免受不可预测的气候变化影响的韩国首个政策保险.无需另外的加入程序,包括登记的外国人在内,只要是京畿道居民都可以享受优惠.

***可以得到多少补偿?** : 保障内容是▲诊断为酷暑引起的温热疾病(中暑、热射病等)时10万韩元▲诊断为蚊子和昆虫媒介传染病(疟疾、恙虫病等)时10万韩元▲与气候相关的伤害时(4周以上诊断)30万韩元.

特别是韩国人中属于气候弱势群体的访问健康管理项目服务对象的话,除了上述保障项目外,还可以得到▲温热疾病住院费(日薪10万韩元)▲气象特报时医疗机构交通费▲紧急护送费等追加支援.

***访问健康管理服务对象是什么?** : 这是针对有疾病等健康危险因素弱势群体,由地区保健所护士等专业人士

直接到家庭提供健康管理服务的项目.低收入阶层、多文化家庭、65岁以上的老人等可以申请.健康有问题的多文化家庭等最好提前向保健所申请访问健康管理项目.

***在哪里申请保险金?** : 想要申请保险金的人可以向气候保险代表专属客服中心韩华损害保险公司(02-2175-5030)申请.有关气候保险的咨询可以通过京畿道网站(www.gg.go.kr/gg_insure)进行确认,也可以打电话咨询韩华损害保险.京畿道独有的气候保险,外国居民也尽情享受优惠吧~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ในฤดูร้อนนี้ ขอให้สมัคร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ก๊ก"!

***มีประกันภัยพิเศษ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 ตั้งแต่ฤดูร้อนนี้เป็นต้นไป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ป่วยด้วยโรค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เช่น โรคลมแดดหรือโรคลมแดด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ำนวน 100,000 วอน ตาม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สำหรับผู้ที่ได้รับบริการ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ของ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ในพื้นที่ ยั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พิ่มเติม เช่น 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รักษ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ะค่าเดินทางอีกด้วย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คืออะไร?** :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เป็นประกันนโยบายฉบับแรกของเกาหลีที่จัดทำขึ้นเพื่อปกป้องสุขภาพและชีวิตของ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จากความ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ที่ไม่สามารถคาดเดาได้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ทุกคนรวมถึ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ทะเบียนพักอาศัย 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สมัคร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ท่าไร?** :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มีดังนี้▲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เช่น โรคลมแดด หรือโรคลมแดด 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ฯลฯ) จะได้รับเงิน 100,000 วอน▲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ติดเชื้อจากยุง หรือตัวไร (เช่น มาลาเรีย, ชิซึกามุชิ ฯลฯ) จะได้รับเงิน 100,000 วอน▲หาก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ที่ต้องรักษานานกว่า 4 สัปดาห์) จะได้รับเงิน 300,000 ว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ที่เป็น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ด้านสภาพอากาศซึ่งอยู่ใน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พิ่มเติม ได้แก่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กรณีเข้าพักรักษาตัว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จากโรคความร้อน (วันละ 100,000 วอน)

▲ค่าเดินทางไป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เมื่อมี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ค่าขนส่งกรณีส่งต่อฉุกเฉิน เป็นต้น

***ใครมีสิทธิ์รับ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 : นี้คือโครงการที่พยาบาลและผู้เชี่ยวชาญอื่นๆ จากศูนย์สุขภาพ

สาธารณะในท้องถิ่นจะไป เยี่ยมที่บ้านเพื่อให้บริ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สุขภาพแก่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ที่มีปัจจัยเสี่ยงด้านสุขภาพ เช่น โรคต่างๆ เป็นต้น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 ครอบครัว พหุวัฒนธรรม, และผู้สูงอายุที่มีอายุมากกว่า 65 ปี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มีปัญหาสุขภาพควรสมัครใช้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ที่ศูนย์สุขภาพสาธารณะล่วงหน้า

***จะขอ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ได้ที่ไหน?** : ผู้ที่ต้อง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สามารถยื่นเรื่องได้ที่ศูนย์บริการ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 บริษัทฮันฮวาประกันภัย วินาศภัย (โทร. 02-2175-5030) หากมีข้อสงสัยเกี่ยวกับ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ได้ที่เว็บไซต์ของ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www.gg.go.kr/gg_insure) หรือสอบถามทางโทรศัพท์ไปที่บริษัทฮันฮวาประกันภัยวินาศภัยได้เช่นกัน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ที่มีเฉพาะในจังหวัด ของก๊ก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ใช้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ได้อย่างเต็มที่เช่นกัน~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Càng thường xuyên gặp gỡ và giao lưu với cư dân nước ngoài, khả năng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àng cao." 이주민과 자주 어울릴수록 다문화 수용성 높아져

Càng trẻ tuổi và càng có nhiều sự tương tác với người di cư thì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người bản xứ càng cao.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ó nghĩa là thái độ hiểu biết và bao dung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nền tảng văn hóa khác nhau.

Theo kết quả khảo sát "Chấp nhận đa văn hóa quốc gia năm 2024" do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Hàn Quốc công bố gần đây,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người trưởng thành đạt 53,38 điểm, tăng 1,11 điểm so với mức 52,27 điểm vào năm 2021. Ngược lại,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thanh thiếu niên là 69,77 điểm, giảm 1,62 điểm so với cuộc khảo sát trước đó vào năm 2021 (71,39 điểm).

Cả người lớn và thanh thiếu niên đều cho thấy rằng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ao hơn ở độ tuổi trẻ. Ở người lớn, nhóm ở độ tuổi 20 có điểm cao nhất với 55.44 điểm, tiếp theo là độ tuổi 30 với 54.75 điểm, độ tuổi 40 với 53.54 điểm, độ tuổi 50 với 53.11 điểm và từ 60 tuổi trở lên là 51.14 điểm. Ở thanh thiếu niên, học sinh trung học cơ sở đạt 71.00 điểm, cao hơn so với học sinh trung học phổ thông với 68.52 điểm. Ngoài ra,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ao hơn khi có sự tương tác thường xuyên với người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bạn bè từ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ối với người trưởng thành,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theo tần suất tương tác với người nhập cư như sau: "ít nhất một lần một tuần" đạt 56,38 điểm; "một lần một tháng" là 54,52 điểm; "một lần một năm" là 53,79 điểm; và "hầu như không có" là 52,35 điểm – cho thấy mức độ chấp nhận giảm dần theo tần suất tương tác.

Tác động tích cực của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được người lớn và thanh thiếu niên đánh giá cao nhất là "giúp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lao động", với tỷ lệ lần lượt là 78,3% và 83,5%.

Đối với người lớn, các lý do cho rằng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là tích cực bao gồm: "giúp làm giảm tình trạng suy giảm dân số" (67,3%), "tác động tích cực đến nền kinh tế nói chung" (65,6%), "đa dạng hóa đời sống văn hóa" (55,3%), và "góp phần đưa ra ý tưởng và đổi mới" (45,9%).

Ảnh hưởng tiêu cực của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được cho là "gánh nặng lên hệ thống phúc lợi", với tỷ lệ lần lượt là 73,1% và 52,2%, là cao nhất. Tiếp theo là "phát sinh xung đột xã hội" (58,0% và

49,7%) và "tình hình tội phạm xấu đi" (51,4% và 35,5%).

Một quan chức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cho biết: "Tỷ lệ hộ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Hàn Quốc đang không ngừng gia tăng. Gần đây, số lượng người di cư kết hôn định cư lâu dài và trẻ em, thanh thiếu niên đa văn hóa trong độ tuổi đi học cũng đang tăng nhanh, vì vậy đây là thời điểm quan trọng hơn bao giờ hết để mở rộng sự đa dạng và tính bao dung". Quan chức này cũng cho biết thêm: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xây dựng một xã hội thừa nhận và tôn trọng sự đa dạng bằng cách tăng cường giáo dục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đa văn hóa theo từng đối tượng và mở rộng cơ hội giao lưu, trao đổi."

Cuộc khảo sát về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người dân là một thống kê được nhà nước phê duyệt và được thực hiện theo chu kỳ 3 năm. Cuộc khảo sát lần này được tiến hành với 11.000 người tham gia, bao gồm 6.000 người trưởng thành từ 19 đến 74 tuổi và 5.000 học sinh trung học cơ sở và trung học phổ thông.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첫걸음, 편리한 한국 여행의 시작.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 개요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제출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국가
대상국가지역은 비자면제(B-1) 67개 국가, 관광통과(B-2) 45개 국가지역 등 총 112개 국가지역입니다.
※대상 국가지역 상세 안내는 K-ETA 공식 홈페이지 [K-ETA 안내] - [신청 가능 국가대상] 참고

신청 대상
비자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112개 국가(지역) 국민

신청 제외 대상자
(외교·관용여권 소지자, UNO여권 소지자, ABTC 소지자, 승무원 및 선원, 한승객,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 등 한미군인, 17세 이하·65세 이상 외국인)

신청 방법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행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수속의 **최소 72시간 전에** 외국인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 시 준비사항 check!
 유효한 여권 수수료(결제 가능한 신용/체크 카드)
 이메일 주소 사진(업로드 가능한 사진 파일 준비)

신청 단계별 안내

- 1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ETA) 접속
- 2 회원가입(회원) / 이메일 인증(비회원)
- 3 여권정보, 신청정보(개인 및 여행정보 등) 입력
- 4 수수료 결제(한화 1만원, 온라인 결제 수수료 별도)
- 5 신청완료

심사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72시간 이내 이메일로 결과 송부 (K-ETA 홈페이지에서도 전자여행허가서 출력 가능)

유효 기간
허가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국신고서 면제
K-ETA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입국 시,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됩니다.

재신청
K-ETA 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범죄경력 및 감염병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를 오입력하여 K-ETA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내역 조회 및 연방화
K-ETA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인증 또는 신청번호 및 여권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여행허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국목적,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 입출국 예정일 등 여행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최신 정보로 수정(현행화)하여야 합니다.

안내 및 문의

K-ETA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K-ETA 공식 홈페이지 [K-ETA 안내] - [문의하기]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문의 가능)

보다 자세한 사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K-ETA 안내]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다가, 꽃으로 자연치유...가족관계향상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5월 24일과 6월 21일, 고양관광정보센터에서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 '꽃보다가족'을 운영했다.

고양마스터가드너회(회장 이기주)의 전문적인 협력을 통해 운영된 이 프로그

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특히 '꽃보다가족'은 총 2회기 자연 치유형 활동으로 구성됐다. 1회기에는 압화를 활용한 LED 스탠드 액자 만들기과 부채만들기가 진행됐으며 2회기에는 모스 디자인을 활용한 천연가습기 만들기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식물과 자연소재를 다루며 감정을 나누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녀와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감정 교류가 촉

진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기주 회장은 "식물과 함께하는 활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정서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고양시, 여름철

눈병 환자 급증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수영장,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유행성 눈병인 유행성각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아폴로눈병) 발생 건수가 늘고 있어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24주차(6월 14일 기준) 외래환자 1,000명당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 수는 10.9명으로, 예년 동기간(2021~2024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EV70, 콕사키바이러스 A24 변종 등)에 의해 발생하며, 전염성이 매우 강한 안과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1~2일의 짧은 잠복기 후 눈의 이물감, 충혈, 눈곱, 눈물 과다 등의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일부에서는 결막 출혈로 인해 눈이 붉게 충혈되는 양상도 보인다.

특히 여름철 수영장, 물놀이 시설, 학원, 학교 등에서의 감염 사례가 많으며, 감염자와의 접촉, 수건·화장품 공동 사용 등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공동생활 공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철저한 손 씻기 ▲수건, 베개, 화장품 등 개인 물품의 공유 금지 ▲눈에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 방문 ▲가정 내 전파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등의 기본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아폴로눈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빠르게 퍼지기 쉬운 질환이지만 손 위생 관리와 개인 물품 관리만 철저히 해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며 "특히 감염이 의심될 때는 출근과 등교를 자제하고, 가족 간의 전파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최근 관내에 출현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곤충으로 생태계 내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익충'이라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학습기회가 부족한 성인,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지원

고양시,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모집해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7월 10일까지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경제적 이유로 등으로 학습기회가 부족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평생교육이용권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35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제2차 모집의 신청 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82명, 65세 이상 노인 150

명, 30세 이상 성인 187명(디지털 교육 전용)이다. 신청 자격이 충족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 후, 잔여 인원에만 일반신청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이 기간에는 지난 1차 모집 때 채우지 못한 인원에도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19세 이상의 저소득층 71명, 19세 이상의 장애인 33명이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저소득층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을 통해, 장

애인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은 전국에 등록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사용이 가능한 기관과 강좌는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디지털 이용권의 경우에는 디지털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평생교육이용권이 단순한 지원금 제공을 넘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1544-6500 이지는 기자



목소리를 전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농촌과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단기 비자 제도와 불법 체류 유발 구조 등 제도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체계, 숙소·식사 제공 부담 등 현실과 제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임금 산정 기준 개선 등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제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대응 과제”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전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민청 유치 등 경기도가 외국인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의원연구단체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발굴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 2025년 6월 17일(화) 「경기도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활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협동조합 ‘이로온발전소’가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진행했다.

연구기관에서는 “경기도의 생산가능인구가 2023년 4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약 94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 산업 분야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과 행정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 업무 숙련도, 체류 형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중앙-지방정부 간 중복 행정의 일원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회원인 김민호 의원(양주2)은 현장의

한편 이번 연구는 ▲산업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수요 분석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효율성 진단 ▲현행 조례의 분석 및 개선 ▲외국인 전담기구 설치 방안 도출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연구 결과는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부·국회 건의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호준 의원(남양주6)을 비롯해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실무 담당자, 연구진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송하성 기자

7월 프로그램 안내

모집안내는 프로그램 별 추후 공지

가족

프로그램명	진행사항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다문화가족자녀교육 활동비2차	접수중	7월	센터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급
가족관계상상 'The 가깝게 다가온'	접수예정	7/29(화)	일산원마운트 워터파크	다문화가족 15가정	가족과 함께 여름방학 물놀이 캠프
부모역할 '아이케어 365'	접수예정	7/23(수)	일산병원 컴퍼런스룸 1	다문화가정 부모 25명	아토피 피부염 / 식공알레르기의 이해와 예방관리
진로설계지원 (진로상담)	상시접수	상시	센터 별관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및 진로상담
기초학습지원	신청마감	7월	센터 별관, 자원봉사센터 덕양분소	다문화가족 자녀 미취학 아동 및 초등(1~4학년)	기초학습 등
진로컨설팅	신청마감	7월	센터, 남현숙 청소년코칭센터	다문화 청소년 (중·고등)	1:1진로컨설팅
진로멘토링	신청마감	7월	외부연계기관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및 멘토링
자녀교육 '꿈나무역사놀이터'	신청마감	매주 토 10:00~12:00	센터, 각 가정, 미추출전통문화연구회	다문화자녀	역사수업 및 식문화체험

자조모임

프로그램명	진행사항	일시	장소	대상	내용
e-플러스 배움터	신청마감	7/12(토) 16:00~17:00	센터별관	다문화 가정 부모·자녀	AI HTP 아동그림 심리검사 PAT 부모양육검사 진행
씨밀레	신청마감	7/22(화) 10:00~12:00	센터 및 외부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강사	인식개선 캠페인 및 워크숍
다사랑 난타클럽	신청마감	매주 화요일 15:00~18:00	아이앤극단	결혼이민자 및 자녀	난타교육 및 연습

한국어 교육과정 1

강좌명	진행사항	기간	요일	시간	장소
토픽 II 기초 다지기반	신청마감	6/5 개강 ~ 8/12	화, 목	10:00~13:00	센터 별관
(한국생활이 편해지는) 통합 한국어	신청마감	6/4 개강 ~ 8/11	월, 수	10:00~13:00	문촌7종합사회복지관
영주귀화시험 대비반	신청마감	3/11 개강 ~ 6/26	화, 목	10:00~13:00	고양시 여성회관 205호

한국어 교육과정 2

강좌명	진행사항	기간	요일	시간	장소
한국어 교실 3차 수강생 모집	접수중	7/9(수)~7/19(토)	월~금	종일	센터 별관

사회통합

프로그램명	진행사항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상시접수	상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고양시민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및 문화체험
취업연계	상시접수	상시	센터 및 외부전문기관	다문화가족 취업희망자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2025년 운전면허교실 '차타고 gogo'	신청마감	7/2(수)~7/8(화) 10:00~12:00	덕양구청 소회의실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22명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 문제풀이,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한국생활 요리교실	신청마감	7/8(화) 10:00~12:00	대한적십자사 고양지구협의회 강당	결혼이민자 30명	한국요리(밀반찬, 국, 찌개 등) 만들기
사이버검정고시	신청마감	7월 매주 월요일	각 가정 및 마두도서관	결혼이민자 16명	초·중·고 검정고시 준비

서비스 안내

상담
다문화 가족 대상 개인 및 가족, 집단상담

온가족보듬사업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문교육
한국어 / 자녀생활 / 부모교육 방문교육 서비스

통번역 지원
일상생활, 의료, 법률, 교육 등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육 / 검사 부모교육 및 상담

교육활동비지원
저소득 다문화 아동 청소년 교재구입, 독서실이용 등 교육적 목적 비용 지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의 : 031-938-9801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6월 21일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해 운영한 '2025년 좋은배우자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다.

'좋은배우자학교'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다회기 부부학교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광명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올해까지 4년 동안 총 86쌍의 부부들이 졸업한 부부관계촉진 프로그램이다.

2025년 경기도 부부특성화지원사업 일환으로 3월 29일부터 진행된 '2025년 좋은배우자학교'는 예비부와 신혼기 부부 24명, 중년기 부부 10명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부부교육과 특별활동, 졸업여행이 진행됐다. 생애주기별 교육은 ▲컬러를 활용한 배우자 이해하고 소통하기 ▲미래설계교육 ▲마음챙김교육 ▲재무 및 재테크 관리교육 ▲부부 성생활 교육을 진행했으며, 특별활동으로는 ▲부부 사진으로 글라스아트 시계 만들기 ▲물레 도자기 만들기 ▲부부 썸씽볼요가 ▲저속노화 요리 만들기를 진행해, 참여 부부들에게 여가활동 지원 및 참여자들 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식은 센터에서 센터장의 축하와 격려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개근상 및 미션상 수여 ▲좋은배우자

학교 활동 영상 시청 등이 이루어졌다. 부부들은 참여 소감을 나누고, 배우자와 미래를 계획하는 다짐을 하며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참여자 정OO씨는 "부부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앞으로의 부부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 김OO씨는 "서로에 대해 친밀도를 쌓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부부들과 함께해 더욱 애뜻하고 화목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은정 센터장은 "좋은배우자학교 사업을 통해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리라 기대한다. 앞으로도 좋은배우자학교 사업이 부부 관계를 증진하고, 올바른 배우자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경기도 내 부부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7월 12일 부부클럽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또는 전화(02-6265-136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광명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접수 시작해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7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부터 2001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7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9월 1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9월 이후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jobaba.net)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1688-3399 김영의 기자

광명시, '제6회 다함께 광명 해요 건강걷기 챌린지'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제6회 다함께 광명해요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이번 챌린지는 일상 속 걷기 실천으로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시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생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챌린지 기간 내 누적 15만 보를 달성한 시민 중 300명을 추첨해 모바일 문화상품권(5천 원권)을 제공한다. 단, 1일 최대 인정 걸음 수는 1만 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워크온(WalkOn)'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한 뒤, 하단 커뮤니티 탭에서 '광명시 공식 커뮤니티'를 검색해 가입하고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 나기호 건강위생과장은 "건강은 거창한 시작이 아닌 일상 속 한 걸음에서 비롯된다"며 "이번 걷기 챌린지가 시민들의 꾸준한 건강관리 습관 형성과 활기찬 일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외국인주민도 함께 만들어요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외국인주민도 협조 당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방청이 국민과 외국인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 3가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환자가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우리 집까지 오니까 응급한 환자가 아닌데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도 119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구급차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사소한 일로 구급차를 부르면 위급한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어요.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어요. 너무 많은 숫자라 깜짝 놀랐어요.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급활동을 위축시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예요. 주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에 따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구급차에 타면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 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해요. 그런데 일부 환자나 보호자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OO병원에 아는 의사 있어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는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병원으로 가던 구급대원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어요.

외국인주민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야겠어요.

〈중국어 하단, 베트남어 8면, 러시아어 19면, 태국어 33면, 영어 20면, 몽골어 8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外国居民也要一起创造正确的119急救车使用文化氛围！... 希望外国居民也给予协助

消防厅(厅长 许锡坤)为了确保急救患者的黄金时间及减少不必要的消防力量损失,正在推进“正确的119急救车使用文化扩散活动”。

通过此次活动,消防厅想告知国民和外国居民▲克制盲目的非急救申报▲杜绝119急救队员暴行▲尊重急救队员选定医院这三点。我们详细了解一下吧?

克制盲目的非急救申报

因为拨打119报警的话,救护车就会开到家里,所以即使不是急诊患者也会报警。

有的人即使有单纯的牙痛或感冒等症状,也会拨打119,要求派救护车。这种行为实在让人无法理解。救护车应该为心脏骤停、脑中风、心肌梗塞、重症外伤等重症急救患者时刻处于准备状态,但是因为小事叫救护车的话,危急患者会陷入危险。

杜绝119急救队员暴行

119急救队员为了守护市民的生命和安全,真的很努力工作。但是最近偶尔会发生殴打急救人员或妨碍急救人员工作的事情。

据消防厅统计资料显示,最近5年间,急救人员暴力受害件数共达1185

件,平均每年有309名急救人员受害。这一数字令人震惊。

殴打急救人员不仅会打击他们的士气,还会妨碍急救行动,导致急救服务质量下降,属于严重的社会犯罪。大多数袭击行为是酒后发生的,根据《消防基本法》,此类行为将面临严厉惩罚,大家必须牢记这一点。

尊重急救人员的医院选定

危急患者乘坐救护车时,急救人员会综合考虑患者症状的重症度分类、医院是否设有相关科室、是否具备紧急处置能力、是否可以进行手术和实时急诊室

病床信息等,选定移送医院。

但是部分患者或监护人要求“请去离我家最近的医院”、“OO医院有认识的医生”、“请无条件去大医院”等。这种行为实际上是不尊重急救人员的专业判断,而是一意孤行的表现。危急情况下,无论去哪家医院,都要尊重急救人员的决定。

希望外国居民朋友们也能理解并支持奋战在第一线、努力守护生命的急救人员,积极参与本次宣传活动,一起营造正确使用119急救车的社会氛围。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마음챙김 · 미술활동 집단 프로그램

- 참여대상** 광명시 거주 경력단절여성 10명
- 일 정** 2025.07.09.~07.23. 매주 수요일 10~12시 총 3회기
- 장 소** 광명시 디지털로 34, 광명시가족센터 배움터 1
- 회기 별 내용** [1회기] 과거와 현재의 나, 있는 그대로 보기
[2회기] 나에게 친절하게 말 걸기
[3회기] 가치를 담은 삶, 다시 피어나는 나
미술활동 (나만의 다이어리 꾸미기)
- 이용금액** 무료
- 신청방법** 우측의 QR 코드를 통한 신청
- 문의처** 070-4725-2911 (상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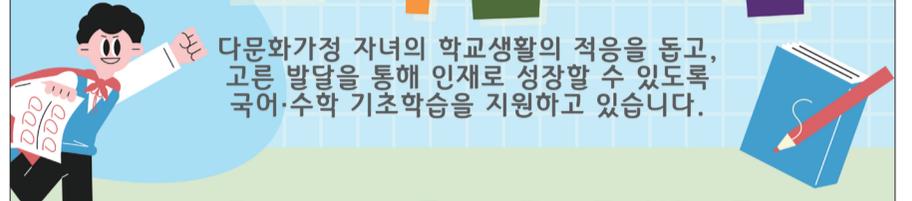


당신 앞의 꽃길
함께 걸어요



광명시가족센터

2025년 광명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사업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고, 고른 발달을 통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어·수학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대상 광명시 거주 다문화, 외국인, 중도입국 가족 자녀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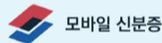
- 교육내용** 기초 국어, 기초 수학, 사회 영역, 중도입국 한국어
- 기초학습 전담 교사의 수준별 맞춤형 소그룹수업으로 진행합니다.
- AI 학습을 활용해 교과연계 창의학습 운영!
- 분기별 특별활동을 실시해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돕습니다.
-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 교육장소**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시 디지털로 34)
- 교육기간** 2025년 3월~12월 (8월, 12월 방학 예정)
- 접수방법** 온라인(QR)신청
- 문의** 박희상 팀원 070-4725-2723



광명시가족센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금융거래 시 이용 안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언제 쓸 수 있나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 시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해요.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야만 쓸 수 있나요?

금융회사 대면(영업점), 비대면(뱅킹앱) 채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금융거래 시 어떻게 사용하나요?

방법1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안내하는 QR코드를 활용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제출하고자 하면, 담당자가 태블릿 PC에 QR을 띄워줍니다.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QR촬영을 하고, 안면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완료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금융회사에 제출됩니다.



방법2 금융회사 뱅킹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 호출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제출
뱅킹앱에서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 업무를 할 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신분증 앱이 자동으로 띄워집니다. 안면인증과 비밀번호 인증을 완료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금융회사로 제출됩니다.



How to use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for financial service

When can I use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It is used for real-name verification for financial services such as opening an account.

Can I use it only when I visit the bank branch?

It can be used on both offline (physical branch) and online (banking app) channels.



How can I use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for financial service?

Option 1 Submit your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by scanning the QR code presented at the bank branch.

Scan the QR code presented on the tablet by the bank teller with the mobile ID app. Complete facial and password authentication to submit your car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Option 2 Submit your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by bringing the mobile ID app to the banking app.

Click on the "Mobile Foreigner Residence Card" button on your banking app to automatically open the mobile ID app. Complete facial and password authentication to submit your card to the financial institution.



맞춤 독서지도와 창의 독후활동

광명도서관, 2025년 어린이 독서회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도서관은 관내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어린이 독서회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8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참가 어린이들은 연령별 수준에 맞는 전문 독서 지도와 다양한 독후 활동을 경험하며, 표현력과 창의력은 물론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다.

체계적인 독서 활동과 창의적인 독후 활동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책 읽기에 대한 흥미와 자

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광명도서관에서는 ‘책 읽는 히어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한 줄짜리 간단한 독후감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고, 자신만의 독서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하반기 어린이 독서회와 ‘책 읽는 히어로’ 프로그램은 연령별 맞춤 독서 지도, 창의적인 독후 활동, 꾸준한 기록 습관 형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역 어린이들이 미래의 독서 리더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하반기 독서회 참가 신청은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도서관 홈페이지(gmlib.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책 읽는 히어로’ 프로그램은 광명도서관 늘푸른어린이자료실 방문 시 신청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숨통~

광명사랑화폐 70만원 충전시 7만원 더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향 조정은 2025년 하반기 정부 추경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지자체 재원을 추가로 보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권정부

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도 상향은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적용된다. 최대 70만 원 충전 시 10% 인센티브가 추가돼 총 77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광명사랑화폐는 연 매출 12억 원 이하의 관내 음식점, 카페, 학원, 병원 등 8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 확인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할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0년부터 연중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다.

김영의 기자

“리모델링으로 새로워졌어요”

경기육아나눔터 무료 육아커뮤니티 공간 운영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가 운영하는 ‘경기육아나눔터’는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육아 커뮤니티 공간이다. 지역 내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육아 정보를 나누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상시로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6월, 3일에 거쳐 철산나눔터의 에어컨 교체, 도장작업, 장난감 교체 등 노후 된 공간을 더욱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단장해 새롭게 문 열었다. 특히 물품 보관함을 새로 들고 놀이매트를 교체해 부모와 자녀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개선 후 철산나눔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술활동이 진행됐다.

미술활동 참여자 김0현 부모는 “철산나눔터가 새롭게 단장하여 너무 좋다. 특히 밝아지고 매우 깨끗해져서 아이들과 놀기에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경기 육아 나눔터가 모든 가족이 편안하게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도 지역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공간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해 아동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명시가족센터는 철산나눔터에 이어 7월에는 또 다른 나눔터(역세권나눔터, 써밋나눔터) 리모델링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단순한 공간 정비를 넘어 상시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장,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광명시가족센터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놀이와 배움을 즐길 수 있으며, 보호자들 또한 소통하고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시경기육아나눔터는 평일 10시부터 7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사전 예약 또한 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간 대여, 프로그램 참여, 가족품앗이를 운영하는 광명시경기육아나눔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gmfc.familynet.or.kr/>) 또는 전화(02-6265-136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에 따뜻한 나눔

태진전력, 김포시가족센터 도시락 기부



㈜태진전력(대표 전진우)은 지난 6월 26일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를 통해 대곶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다문화 가족에게 도시락 50개를 기부했다.

전진우 대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아, 가족센터를 통해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된 도시락은 닭고기 위주로 구성되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족들도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도시락을 받은 다문화가족들은 “물

가가 올라 식사 준비가 부담이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 따뜻한 도시락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조미정 센터장은 “지역 내 저소득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후원이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연대의 소중한 실천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포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취약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돌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의 위탁을 받아 (사)일일시호일이 운영하는 김포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돌봄지원 등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맞춤형 직업훈련 진행해요”

김포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23일 맞춤형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사전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한국어 중급 이상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교육과 직업훈련과정을 5개월간 진행한다.

사전교육은 본 교육에 앞서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단계로 마련된다. 교육 대상자의 학습 수준과 요구를 파악해 더욱 효과적인 본 교육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문화학습관리사 및 이중언어강사’

과정은 결혼이민자의 언어 및 문화적 강점을 살려 지역 다문화 아동들의 학습지도와 언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문 과정이다. 또한 ‘아동요리지도사’ 과정은 아동의 식습관 형성과 창의적 표현능력 개발을 도울 수 있는 아동요리교육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이번 직업훈련 과정이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김포시가족센터

찾아가는 가족센터, 모여락(樂)

본 센터에서는 양육자의 양육 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 부모교육을 시행하며, 지역주민의 센터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가 직접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가족센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 🌸 사업기간: 5월~10월
- 🌸 참여대상: 아래 주제의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 🌸 신청방법: 개인, 단체 모두 가능
 1. QR코드 접속 하여 구글폼 신청서 작성
 2. 최소 7인 이상 모이면 센터 측에서 개별 연락 →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여 센터 안내에 따라 최종 신청 → 교육 일정 조율
 3. 전문강사를 지역주민이 있는 곳에 파견
- 🌸 문의사항: ☎ 031-996-5920

가족 의사소통 이해 교육

“우리 가족,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를 위한 교육!

부모 감정코칭

“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도 이해해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부모교육

“요즘 큰 문제인 디지털 성범죄..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까요?”
sns, 스마트폰, 디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요즘, 예방 및 대처 방법!

긍정운동 교육

“우리 아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긍정운동 방법에 대한 모든 것!

생애주기별 자녀 성교육

“성교육, 어디까지 알려줘야 할까요?”
생애주기별 성교육 방법이 다른 것을 알고
있나요? 생애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

202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김포시 관내 외부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언어교육을 지원합니다. (기본 6개월이며, 진전평가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최대 3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상시모집이나 대기 기간 발생 가능 (대기자 우선)

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만 12세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언어치료 바우처 및 유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자
- 방문교육 서비스 중 자녀생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소 김포시가족센터와 협약한 언어발달치료 전문기관

신청방법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어린이 회원가입 (아동)

➔ 프로그램 신청 ▶ 다문화가족서비스 ▶ 언어발달서비스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전화 및 보호자 초기면담

문의 ☎ 031-996-5920 언어발달연계 담당자

김포시가족센터
GIMPOSI FAMILY CENTER

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จัดแคมเปญเผยแพร่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ร่วมสร้างไปด้วยกัน

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อธิบดี ฮอ ซอกกอน) 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 “แคมเปญ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พื่อรักษาช่วงเวลาทอง ใ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ป่วยฉุกเฉินและลดการสูญเสียทรัพยากรของหน่วยดับเพลิง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ผ่านแคมเปญในครั้งนี้ สิ่งที่กรมดับเพลิงต้อง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ให้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บทราบ มี 3 เรื่อง คือ ▲ หลีกเลี่ยง การ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 ยุติการทำร้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 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ฉุกเฉินในการ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ลงมือด้วยกัน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ว่าหมายถึงอะไรบ้าง?

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บางครั้งเมื่อมีคนป่วย ก็มีคนโทรแจ้ง 119 ให้รถพยาบาลมาที่บ้าน มีบางกรณีผู้ป่วยไม่ได้อยู่ในภาวะฉุกเฉินจริงๆ บางคนถึงขั้นโทรเรียก 119

และขอรถพยาบาลเพียงเพราะปวดฟันหรือเป็นหวัด ซึ่งเป็นเรื่องที่ไม่สมควรอย่างยิ่ง 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ควร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ผู้ป่วยฉุกเฉิน

จริงๆ เช่น ภาวะหัวใจหยุดเต้น, โรคหลอดเลือดสมอง, กล้ามเนื้อหัวใจขาดเลือด, หรืออุบัติเหตุรุนแรง หากเรียก

รถพยาบาลด้วยเหตุเล็กน้อย

อาจทำให้ผู้ป่วยที่มีอาการฉุกเฉินจริงๆ ตกอยู่ในอันตรายได้

ยุติการทำร้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เจ้าหน้าที่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ทำงานอย่างหนักเพื่อปกป้องชีวิ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ช่วงหลังมานี้ กลับ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ที่มีผู้ทำร้ายหรือขัดขวาง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อยู่เป็นครั้งคราว จากสถิติของ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พบว่าในช่วง 5 ปีที่ผ่านมา มีเหตุการณ์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ถูกทำร้ายรวมทั้ง 1,185 ครั้ง

เฉลี่ยแล้วมีเจ้าหน้าที่ประมาณ 309 คนต่อปีที่ถู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เหตุการณ์เหล่านี้ ซึ่งเป็นตัวเลขที่มากจนรู้สึกตกใจเลยทีเดียว

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ถือ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ที่ส่งผลให้เจ้าหน้าที่สูญเสียขวัญกำลังใจและทำให้การปฏิบัติ งานช่วยชีวิตลดลง ซึ่งอาจทำให้คุณภาพของบริการฉุกเฉินแย่ลง ผู้ที่ก่อเหตุส่วนใหญ่มักอยู่ในอาการมึนเมา และควรตระหนักไว้ว่าการกระทำ เช่นนี้มีโทษรุนแร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การดับเพลิง 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ฉุกเฉินในการ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

เมื่อมีผู้ป่วยฉุกเฉินขึ้นรถพยาบาล 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จะพิจารณาโดยครอบคลุมทั้ง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องอาการผู้ป่วย 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 แผนกที่เกี่ยวข้อง,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รักษาและการผ่าตัด ตลอดจนข้อมูลจำนวนเตียงว่างในท้องฉุกเฉินแบบเรียลไทม์ เพื่อ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จะนำผู้ป่วยส่งตัวไป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มีผู้ป่วยหรือผู้ดูแลบางรายที่ร้องขอว่า “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ใกล้บ้านที่สุดนะครับ”, “มีหมอที่รู้จัก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 ○”, “ขอไปแต่โรงพยาบาลใหญ่เท่านั้น” เป็นต้น การกระทำเช่นนี้เปรียบเสมือนการไม่เชื่อมั่นในการตัดสินใจอย่างมืออาชีพ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 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และยืนยันที่จะทำ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ตนเอง

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 เราควร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ไม่ว่าจะนำส่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ใดก็ตาม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ควรส่งเสริมและให้กำลังใจ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ที่ทุ่มเท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ช่วยชีวิตผู้คน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ยากลำบาก และควรมีส่วนร่วมในแคมเปญครั้งนี้ด้วย <한글 기사 29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Видео уралдаанаар дамжуулан олон соёл зэрэгцэн орших нийгмийн уур амьсгалыг бүрдүүлцгээе”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영상콘텐츠 공모전

Гэнги аймаг ирэх 7-р сарын 18-ныг хүртэл “Цагаач иргэдтэй хамтдаа хөгжих Гёнги аймаг” сэдэвт анхдугаар видео контентын уралдаан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 нь олон нийтэд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 мөн олон соёл зэрэгцэн орших нийгмийн уур амьсгалыг бүрд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Анх уралдааны материалыг 6-р сарын 20-ныг хүртэл хүлээн авахаар төлөвлөж байсан ч хугацааг сунгаж, 7-р сарын 18-ныг хүртэл хүлээн авахаар болсон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д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иргэншил авсан хүмүүсийг оролцуулан) болон цагаачдын нийгэмд нийлэх асуудалд сонирхолтой хэн бүхэн хувь хүн болон баг (2–5 хүн) хэлбэрээр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Уралдааны сэдэв нь “Цагаач иргэдтэй хамтдаа хөгжих Гёнги аймаг –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нэгдэл ба зохицол” юм.Энэ сэдэвтэй холбоотой аливаа агуулга байж болох бөгөөд сэдвийн хүрээнд ямар ч төрлийн бүтээлийг хүлээн авна.

Уралдаан нь дараах хоёр ангилалтай: △ Цагаа

ч нийгмийн нэгдлийг харуулсан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шорт форм видео △ Цагаач иргэд ба орон нутгийн иргэдийн зохицлыг харуулсан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сан видео.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шорт форм видео’ нь уралдааны сэдэвтэй холбоотой, олон нийтэд чиглэсэн агуулгатай бичлэг байх ёстой.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сан видео’ нь төрсөн улс,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ирэх болсон түүх, одоогийн амьдрал болон ирээдүйн мөрөөдөл, зорилго зэргийг багтаасан хувь хүний түүх байж болно.

Шалгаруулалтаар тодорсон шилдэг бүтээлүүдэд нийт 15 сая воны шагнал болон Гё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агчийн өргөмжлөл гардуулна.

Шагналын ангилал нь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байна: △ Гран при (2 хүн) – тус бүр 3 сая вон, △ Тэргүүн байр / Шилдэг шагнал (2 хүн) – тус бүр 2 сая вон, △ Дэд байр / Төвшингийн шагнал (2 хүн) – тус бүр 1 сая вон, △ Тусгай шагнал / Урамшууллын шагнал (6 хүн) – тус бүр 500,000 вон.

Нэг хүн хэд хэдэн бүтээл ирүүлсэн тохиолдолд давхар шагнал авах боломжгүй бөгөөд хамги

йн өндөр оноо авсан ганц бүтээл нь шалгаруулалтад тооцогдоно.

Оролцохыг хүсэгчид дараах бичиг баримтыг цахим шуудангаар (bravo8032@gg.go.kr) илгээн бүртгүүлнэ.Оролцох хүсэлт нь уралдааны бүтээлээс гадна уралдааны өргөдөл, зөвшөөрөл, тангараг өргөх бичгийг цахим шуудангаар (bravo8032@gg.go.kr) илгээх хэрэгтэй. Эдгээр бичиг баримтыг “ПапаяаСтори” ток цэснээс тата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ллийг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нийгмийг дэмжих хэлтсээс лавлаж болно. (031-8030-4682)

Г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газрын дарга Ким Вон Гю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 болон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ах бичлэгээр бодит жишээг хуваалцсанаар цагаачид ба орон нутгий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тыг улам идэвхжүүлэх төлөвлөгөөтэй”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аар цагаач нийгэмд эерэг өөрчлөлт авчрах олон сайн контентууд олноор төрөн гарахыг хүсье” гэж хэллээ. <한글 기사 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2025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신청 안내

김포시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김포시에 거주하는 90일 이상 경과한 등록 체류 외국인
- 경기도 긴급복지사업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이외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지원내용

- 생계비 :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긴급 생계 어려움이 있을 시 지원

가구원수	지원금액	가구원수	지원금액
1인	765,400	4인	1,951,200
2인	1,258,400	5인	2,274,600
3인	1,608,100	6인	2,580,700

- 의료비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긴급한 지원 필요시(의사 소견서 필수)
- 의료실비 : 최대 100만원 출산비 : 최대 50만원
- 장제비 :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시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기간

2025년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지원절차

신청

신청서 제출

접수 및 현장조사

1. 신청서 접수
2. 현장확인 및 사실조사

지원 및 통보

병원, 개인계좌로 지원비 입금

지원 검토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2. 지원여부 결정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분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2025년 한국어교실 수강생모집

2025년 2학기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만 19세 이상 김포시 거주 외국인

신청기간

25.7.6(일)9:00~7.8(화)9:00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 구급콜

교육문의

교육팀 070-4617-6419

교육기간	프로그램명	(요일) 교육시간 : 매주 *일요일* 수업	수업방법	모집인원	선발방법
7.27(일) -12.7(일)	한국어 초급1A	(일요일) 09:00~18:00 - 각 반 2시간 수업 -	교실	100명	선착순 레벨테스트
	한국어능력시험대비(TOPIK1)		ZOOM	30명	레벨테스트
	한국어능력시험대비(TOPIK2)		ZOOM	15명	레벨테스트

과정안내

한국어 초급 1A 과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말하기를 배웁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대비과정은 2026년 토익시험을 준비합니다.

2025년 2학기 한국어 교실 수강생 등록 세부 일정

7.6(일)~7.8(화)	7.10(목)	7.13(일)	7.20(일)	7.27(일)
7.6(일)9시~7.8(화)19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결과안내 *안내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레벨테스트 *초급1A, TOPIK1, TOPIK2 시험 시간: 개별 문자 안내	레벨테스트 결과 안내 *안내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2학기 한국어교실 개강

▶ 등록 및 세부 일정은 기관 상황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곡로 110번길 52

2025년 제2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모집

LIFELONG EDUCATION VOUCHER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 (최대 70만원*)의 이용권을 국가-경기도-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학습자 선정 시

경돈내산?
경기도 등으로 내 수업 선다

[신청기간]

2025. 06. 26.(목) 10:00 ~ 07. 10.(목) 18:00

[모집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이용권 유형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용기간
일반(지역특화) 이용권 (6,700명 내외)	청년(19~39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AID 커리어 점프패스 (디지털 이용권) (2,100명 내외)	30세 이상 성인 (디지털 교육 수강 희망자)	디지털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간
노인 이용권 (1,700명 내외)	65세 이상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 시군별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포인트 지급(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을 통한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사용기관/강좌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에 접속하여 사용기관/강좌 확인 * 사용기관 지역 제한 없음

청년·노인·디지털 이용자 모집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통합 상담센터 : 1544-6500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www.lllcard.kr/gyeonggi

2025년 제1차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추가모집

LIFELONG EDUCATION VOUCHER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이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35만원 (최대 70만원*)의 이용권을 국가-경기도-도내 31개 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학습자 선정 시

경돈내산?
경기도 등으로 내 수업 선다

[신청기간]

2025. 06. 26.(목) 10:00 ~ 07. 10.(목) 18:00

[모집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19세 이상 성인

이용권 유형	지원대상 (신청자격)	공지사항 확인
경기도 평생교육 이용권 (2,500명 내외)	19세 이상 성인 (신청시 소득 자격기준 삭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500명 내외)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시군별 지원규모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 1인당 35만원 포인트 지급(우수이용자 선정 시 최대 70만원)

신청방법 : ①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을 통한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②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방법
1) 보조금 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2025년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추가모집) 선택
2) 시·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담당부서* 방문신청 * 담당부서 확인 :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544-6500) 문의 필요

사용기관/강좌 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gyeonggi)에 접속하여 사용기관/강좌 확인 * 사용기관 지역 제한 없음

비장애인·장애인 이용자 추가 모집 (신청 시 소득 자격기준이 사라졌어요!)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통합 상담센터 : 1544-6500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www.lllcard.kr/gyeonggi



총인구 대비 5%를 넘어섰고 김포시 또한 50만 대도시를 이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김포시는 세대 전반에 걸쳐 상호문화교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보다 체계적인 지원 협력 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럽평의회 주관 공식 지정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다. 김포시는 시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전에 망설이지 않고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 다문화 정책 소통 교량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김포시는 회장도시 선출 후 전국다문화도시

민선8기 김포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공식 지정 도전!

상호문화도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김포 내 축적된 문화적 자산 체계적 발전 유도한다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김포시가 이주정책과 사회통합 가치를 선도하기 위한 유럽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 공식 지정 신청에 나선다.

이는 그간 김포시 내에서 축적되어 온 문화적 자산을 공식 인증받아 좀 더 체계적인 지원 협력 체제의 선순환 궤도에 올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의미로, 김포시의 대내외 브랜드 상승 효과 및 상호문화주의 정책 평가를 통한 실효성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포시는 지난 23일 김포시청 중회의실에서 상호문화도시 지정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김포시가족센터, 용역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이 참석

해, 김포시의 상호문화도시 지정 추진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김포시의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GIMPO VIBES’ 전략의 ‘다양성(Variety)’,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균형(Balance)’, ‘형평성(Equ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제도적 형평성 강화 △상호문화적 상호작용 촉진 △균형 있는 사회통합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전국적 확산을 위한 김포형 모델 정립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김포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내 유럽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대한민국의 등록 외국인이

협의회 최초 구성 후 12년 만에 외교사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주민 관련 정책 의제가 범정부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는 자리를 개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상호문화도시인 김포시는 약 2만5천여명의 등록 외국인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상호문화주의’ 실현을 위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범위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어우러져 문화로 소통하는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를 개관했으며, 기초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아동 초등학교 입학 안내문을 통지하는 등 선도적인 상호문화주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송하성 기자

세계 도시 도약하는 김포,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 위한 공공의 장 열어

김포시, 애기봉에서 ‘글로벌 감성 ON 토크콘서트’...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김포 등 대화



대외협력 강화로 글로벌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김포시에서 24일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시민의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토크콘서트 ‘글로벌 감성 ON 토크콘서트’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개최했다. 비정상회담 출연진으로 잘 알려진 알베르토 몬디(이탈리아), 다니엘 린데만(독일), 렉키(인도) 등이 패널로 참여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자체가 시민의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공공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의 잠재력을 더 큰 세상으로 보

내 기회가 찾아오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김포 안에서 우리끼리’의 지역적 관점에서 벗어나 대외적 소통과 협력으로 시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각국의 교육에 대한 관점과 방향 외에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김포의 첫인상과 김포명소, 상호문화, 전쟁과 평화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진솔하고 유쾌한 대화가 이어졌다.

사회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 홍보대사이자 채널A 김진 앵커가 맡아 출연진들과 함께 재치있고 따뜻한 무대를 이끌었고, 패널과 시민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할 수 있었다.

출연진들은 이날 콘서트에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상상 이상으로 아름다웠다. 커피 한잔 마시고 산책하면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장소”라고 감탄하며 “외국인 친구들이 오면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200여명의 내외국인 및 김포시민들이 함께 한 이날

토크콘서트 후 시민들은 큰 만족감을 표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시민은 “김포시에서 중요한 자리를 만들었다. 시가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데 시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의식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확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관광명소를 넘어 글로벌 감성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김포시는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시민들에게 좋은 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선8기 김포시는 다양한 국외도시와의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다함께 돌봄센터 원어민 교육, 외국어 공부법 특강 및 초등 방학 영어캠프 등 학생과 시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명품 교육도시로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다.

김영의 기자



“1인가구, 식생활 공유·소통해요~”

김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식생활개선프로그램 운영

김포시가족센터(센터장 조미정)는 최근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청년기와 중장년층의 식생활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불규칙한 식사와 간편식 의존도가 높은 1인가구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 수업뿐만 아니라 음식 및 재료에 관한 기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든든한 한끼 프로젝트’는 스스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고, 식재료 구매 및 활용 방법을 교육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습관화하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장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혼자서도 잘먹습니다’는 40~50대 중년층을 대상으로, 저속노화, 뼈 건강 관리 등을 위한 식생활 개선을 목표로 한다. 중년층의 식생활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식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중장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성인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미정 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인가구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식생활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포시가족센터는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효과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1인가구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김포시가족센터 1인가구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은 경기도 내 1인 가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8월부터 하반기 참여자를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1인가구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은 현대사회의 증가하는 1인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인가구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김포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가족센터(031-996-59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김포시, 2차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다양한 계층 지원



김포시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김포시 거주 시민으로, 1차 평생교육이용권 추가 신청 대상인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2차 평생교육이용권 신규 신청 대상인 노인, 청년, 디지털교육수요자 등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유형은 ▲일반(추가접수, 성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추가접수, 성인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 ▲청년(19세~39세) ▲디지털교육 수요자(30세 이상)이며, 총 400여 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35만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이 지급되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정부24의 ‘보조금24’를 통해, 그 외 평생교육이용권은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사이트(www.lllcard.kr/gyeonggi)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중복수혜 여부 등을 검증한 후 농협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올해 12월 말까지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1544-6500

김영의 기자

글로벌 관광지 애기봉에 10개국 주한대사 방문...김포 소개하고 국제교류 논의



10개국 주한대사들과 배우자 등 19명이 27일 김포를 찾아 애기봉과 장릉을 비롯한 김포의 곳곳을 살피며 김포의 자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이날 김포시는 10개국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김포의 자원을 소개하며 국제교류 및 경제외교의 발판을 다졌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이뤄진 주한 세르비아 대사와의 만남 이후 성사된 것으로, 10개국의 대사들이 배우자들과 함께 지자체를 찾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는 김포시의 위상과 국제적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주한 대사 일행은 하성면 ‘벼꽃농부’에서의 농촌 체험 활동으로 시작해 애기봉에서 김병수 시장과의 환영인사를 나누는 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릉 탐방으로 이어졌다.

김병수 시장은 애기봉의 글로벌 문화자산 가치,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김포시의 관광문화 및 산업 등 전반적 비전에 대해 대사들에게 설명하며 김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어필했고, 대사들은 이에 호응하며 김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대사들은 김병수 시장에

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김포시 방문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10개국 대사분들의 방문은 단순한 도시 소개를 넘어서, 국제도시로 성장 중인 김포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향후 국외 도시들과의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포의 잠재력을 더 큰 세상으로 보내 기회가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방문은 김포시가 추진 중인 국제교류 및 경제외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김포시는 다양한 국외도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외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이주민 친화도시의 입지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